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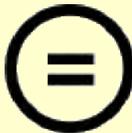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논문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
Font Design Based on the Handwriting of Sachaguan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 from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to 'Hangeul Jaemin 3.0'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이 규 선

2021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
Font Design Based on the Handwriting of Sachaguan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 from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to 'Hangeul Jaemin 3.0' -

지도교수 박 윤 정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이 규 선

2021

이규선의
디자인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심사위원장 김 민 (인) 

심사위원 KMB 정채혁 (인) 

심사위원 조규명 (인) 

심사위원 김예은 (인) 

심사위원 박윤정 (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인용 출처

이 연구의 'V. 한글재민체 폰트 디자인'은 연구자가 투고한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Vol.22 No.3, 319~330쪽, 한국기초조형학회, 2020)와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 -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Vol.23 No.1, 369~380쪽, 한국기초조형학회, 2021)에서 발췌했음을 명시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2
1.2. 연구의 목적	3
1.3. 연구의 대상	4

II. 한글 글꼴의 유래 및 디지털폰트의 현황

2.1. 훈민정음의 탄생과 의의	8
2.2. 한글 글꼴의 변천과정	8
2.2.1. 창제초기 한글 글꼴의 변화	8
2.2.2. 관료서체	12
2.2.3. 궁체정자	13
가. 관료의 궁체	13
나. 서사상공의 궁체	13
2.3. 디지털폰트의 현황	
2.3.1. 개발 범위	15
가. 한글	15
나. 라틴 알파벳	16
다. 한자	18
2.3.2. 국내 무료폰트의 현황	24

III. 고문헌 필체 기반의 한글 디지털폰트 기초연구

3.1. 고문헌 필체 기반의 한글 디지털폰트	26
3.1.1. 복원과 재해석	27
가. 복원의 개념	27
나. 재해석의 개념	28
3.1.2. 사례조사	29
가. 옛글꼴 기반의 폰트	30
나. 필사 유형의 폰트	36

IV. 사자관체를 기반으로 한 한글재민체 폰트 디자인

4.1. 사자관의 신분과 역할	39
4.2. 사자관 필체 사례조사 및 분석	39
4.2.1. 사례조사	39
가. 왕실 고문서	40
다. 서순행일기	44
4.2.2. 사자관체의 정의	44
4.3. 한글재민체 개발 개요	45
4.3.1. 개발 목적	45
4.3.2. 개발 추진팀 체계	45
4.3.3. 개발 범위	46
4.4. 한글 개발	47
4.4.1.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필체 분석	47
가. 글자의 개수 및 유형	47
나. 궁체와 비교분석	49
4.4.2. 한글 디자인	52
가. 디자인 컨셉	52
나. 디자인 원칙	53
4.5. 한자 개발	55
4.5.1. 개발 범위	55
4.5.2. 한글과 한자 자형 비교	55
4.5.3. 대한의원개원칙서 한자 필체 분석	56
4.5.4. 한자 디자인	57
가. 모양자 균일화	57
나. 한자 개발	58
4.5.5. 한국한자 및 대법원인명용한자	61
가. 분류	61
나. 글자의 형태	64
4.6. 라틴 알파벳 개발	65
4.6.1. 한글재민체1.0 라틴 알파벳 디자인	66
4.6.2. 서체 유형 분석	68

가. 복스-ATypI 글자체 분류법	69
나. 스크립트 서체 유형	70
다. 트랜지셔널 서체 유형	71
라. 글리픽 서체 유형	72
4.6.3. 라틴 알파벳 디자인	73
가. 디자인 원칙	73
나. 글줄 배열	75
4.7. 아라비아 숫자 및 특수문자 개발	76
4.7.1. 개발 범위	76
4.7.2. 아라비아 숫자	77
4.7.3. 특수문자	79
V. 보급 및 배포	
5.1. 진시	83
5.2. 배포	87
5.3. 활용사례	88
VI.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92
6.2. 연구의 가치	92
6.3.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93
참고문헌	94
표목록	95
그림목록	96
Abstract	98
부록	101



국문초록

문화적 산물인 한글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고 있다. 글꼴 사용이 증가함에 다양한 스타일의 폰트가 많아지고 초기 한글 활자 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고문헌 글꼴을 중심으로 한 서체 복원 작업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반면에 19세기 말 왕실의 공식문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만 한글 글자 수가 적은 필사체 글꼴의 연구 및 폰트 디자인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옛 문헌이 많고 한자에 비해 한글 글자 수가 적은 탓에 이를 기반으로 한 복원 및 폰트 개발에는 작업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옛 문헌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1908년 순종 황제가 내린 국한문 혼용문서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옛 글자체의 특징을 발체, 참고하여 그 시대의 글자 표현을 현 시대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한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개발사례를 제시한다.

대한의원개원칙서는 조선의 공식문서로서 사자관(寫字官)에 의해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뜻을 받아 적었던 사자관의 시초는 조선의 명필 한호(韓濩)로, 대중에게는 한석봉(韓石峯)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명필 한호의 계보에 따라 조선의 공식 문서에 담긴 날렵하면서도 강건한 기개의 한글과 한자의 모습을 ‘사자관체(寫字官體)’로 정의했으며,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나타나는 한글 33자의 글자 인상을 바탕으로 디지털환경의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숫자와 문장부호를 파생하여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재해석 폰트를 제작하였다.

한글재민체는 ‘한 별의 서체’ 개념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한 별의 한글 폰트가 완성되려면 한글과 함께 쓰이는 라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와 문장부호 등을 일관된 모습으로 개발하게 된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은 물론, 제목용 폰트 중 최초로 한자가 탑재된 한글재민체는 고문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춰진 실험적 폰트 디자인 및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까닭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의 혼용 및 병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고문헌 인

용문이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 및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부족한데, 개성 있는 한글과 조화로운 한자를 찾기 어렵다. 한자는 개발해야 하는 글자 수가 많고, 개발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기성폰트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한글재민체는 KS X 1001 한자 영역에 해당하는 한자 4,888자와 더불어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한자 203자와 대법원인명용한자 8,279자가 탑재되어 있다. 대법원인명용한자가 포함됨으로써 한글재민체는 사용하는 모든이가 본인의 이름을 시각적으로 통일된 스타일의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문으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국한자 203자를 포함함으로써 우리의 선조들이 한글이 활발히 사용되기 전에 한국 고유어의 음절을 적기 위해 개발한 한국 고유한자를 재조명할 수 있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나타나는 한글 33자의 글자 인상(印象)을 바탕으로 디지털환경의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숫자와 문장부호로 파생하였다. 구한말 사자관의 필체를 폰트로 제작하는 과정과 작업 내용을 요약하였고, 전시 및 온라인 무료 배포를 통한 폰트 상용화 연구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한글재민체는 버전 1.0부터 3.0까지 2번 업그레이드되었고, 각 단계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유마당’을 통해 오픈소스 형식으로 배포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종 황제가 대한의원을 개원한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었고, 대한의원개원칙서는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글재민체의 무료 상용화는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둔 사례이다.

연구의 시초가 된 개원칙서 외에도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옛 문헌의 글꼴 발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문자 체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의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의 지혜와 조형 감각이 담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잊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글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대한의원개원칙서, 사자관체, 재해석폰트, 한국한자, 문화유산 디자인

I. 서론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직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백범일지>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기록했다. 1443년 창제 이후 현 21세기까지 우리의 문자 한글은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며 한국의 고유 콘텐츠로서 김구가 강조한 ‘높은 문화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 한글은 수 세기에 걸쳐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상속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힘을 담은 한글은 디지털 환경 아래 폰트의 모습으로 활발히 개발 및 상용화(常用化)되고 있다.

2019년 (사)한국폰트협회는 서울·경기 소재 글꼴 관련 업체를 60개 이상으로 파악하였고 그중 21개의 업체 대상 국내 보유 폰트로 총 6,693종을 보고했다. 다채로운 디자인의 폰트 개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 아카이빙의 기술 발전 아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옛 문헌을 통해 한글문화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살려 나가기 위한 옛 활자체의 복원개발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민관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들다”¹⁾. 특히 글자 표본이 많아 집자가 용이한 고서와는 달리 낱장 형태인 고문서의 발굴, 또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폰트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유문자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옛 글꼴의 발굴과 연구는 한글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토대이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어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과 더불어 한자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혼용되고 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한국말을 기록할 문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하였다.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446년 반포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표의문자인 한자와 표음문자인 한글, 두 개의 문자체계를 사용하는 언어생활을 유지해왔다. 한글과 한자의 혼용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체계의 내적 구조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Myo, J., 2010). 두 문자체계가 오랫동안 공존해온 결과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분 없이 무의식적으로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한국어를 생활

1) 유정숙, 한글 옛 글자체의 발굴과 개발에 관한 연구(3),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8권, 4호, 2017, 221쪽

속 언어와 문자체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단순한 구조로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흡수되었고, 고유어와 결합되어 사용될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외래요소라는 인식 또한 약화되었다.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온 한국어는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다채로운 인상을 가진 다양한 한글 폰트로 표현되고 있다. 한 벌의 한글 폰트가 완성되려면 함께 쓰이는 영문, 숫자와 문장부호 등을 일관된 모습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한자는 개발해야 하는 글자 수가 많고, 개발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기성폰트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까닭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의 혼용·병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고문헌 인용문이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 및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부족한데, 개성 있는 한글과 조화로운 한자를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1908년 순종 황제가 내린 구한말 문서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속 사자관(寫字官)의 붓글씨 기반의 필체를 발굴하여 그 시대의 한글 표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폰트의 제작과정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목적

구한말 사자관의 붓글씨 글꼴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재해석 폰트로 디자인한 한글재민체 개발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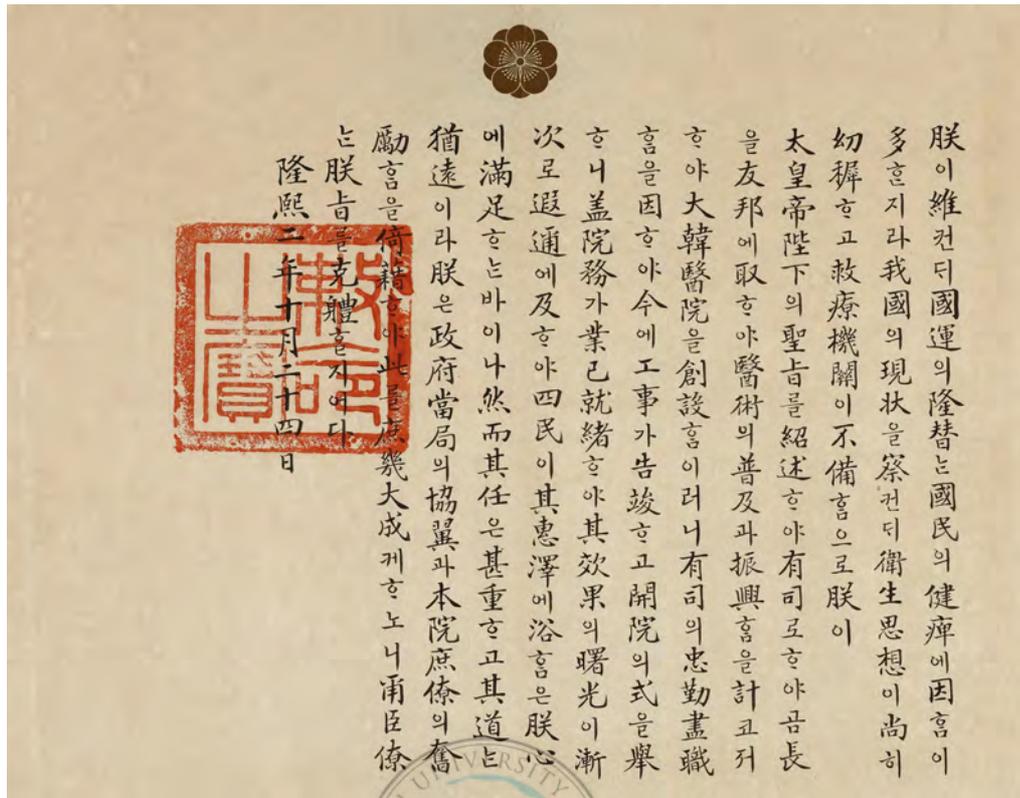
첫째는, 한 벌의 폰트 구성을 한글, 라틴 알파벳, 특수문자 디자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자와 한 벌을 이룬 부분이다.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제목용 폰트들은 한 벌의 폰트 구성에 한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자의 방대한 개발 스펙과 사용에 대한 빈도수가 낮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제목용 폰트의 한자 부재는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에 제한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한글과 조화롭지 못한 엉뚱한 모습의 한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글 디자인과 동일한 조형 요소를 한자 디자인에 적용하여 한글, 한자, 알파벳과의 어울림을 최적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 벌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것에 있다.

둘째는, 재해석폰트의 상용화 과정을 통해 백여 년 전 기록된 고문서에 담긴 내용과 글꼴의 미적 가치와 더불어 우리 조상의 창의적인 발상이 담긴 한국 고유한자를 재조명, 발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문헌의 옛 한글과 한자의 표현과 전통성을 이어나가고, 문화유산 디자인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는 ‘사자관체’라는 고문서 기반의 붓글씨 폰트디자인의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여 디지털환경에서 사용되는 폰트의 다양화에 이바지함에 있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문서의 상징적 의미를 조형적 표현으로 형상화하여 한벌의 폰트로 완성시켰고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1908년 10월 24일 순종 황제가 대한의원 개원식 즈음 해 내린 대한의원개원칙서(이하 개원칙서)로 선정하였다. “대한의원 이전에도 제 중원과 광제원 같은 국립병원이 있었으나, 당시 양반 귀족이나 고위 관리들은 병이 생겨도 자신이 아는 전통 의학 지식에 따라 직접 약을 짓거나 의사를 집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들 병원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시혜적 병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사례였다”(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새로 문을 연 대한의원이 이러한 관습을 크게 바꾸어놓았고 이를 공식화한 문서가 바로 개원칙서이다.



<그림 1>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번역본>²⁾

짐이 생각하건대 국운의 성쇠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연유함이 많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살피건대 위생 사상이 아직 유치하고 의료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짐이 태황제폐하의 성스러운 뜻을 이어받아 담당관리들로 하여금 우방에서 장점을 취해 의술의 보급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대한의원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담당관리들이 업무를 충실히 행하여 이제 공사가 준공되고 개원식을 거행해 본원의 업무를 시작하여 그 효과의 서광이 점차 원근에 미쳐 온 국민이 그 혜택을 입게 됨은 짐이 마음속으로 만족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임무는 막중하고 그 길은 아직 멀다 짐은 정부 당국의 협력과 본원 의료진의 분발에 의지하여 이를 대성하게 하려 하니 그대들 신료는 짐의 뜻을 받들지어다

해당 문서에는 가로세로 11cm 크기의 대한제국 국새가 찍혀있으며 선왕인 고종 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라는 순종의 뜻이 담겨있다.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문서로서 의학사적, 상징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9년

2) 대한의원개원칙서의 한글 번역본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역사문화원 김상태 교수로부터 받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갑수 명예교수의 도움으로 정리된 번역본을 전달 받았다

10월 12일에 국가 등록문화재 제449호로 지정되었다. 백성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한 황제의 의를 받아 적었던 사자관의 필체는 1910년 일제강점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1446년 반포 이후 한글 역사의 절정에 남겨진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그 필체에 담긴 단아하면서도 독특한 자소 및 온글자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로 소환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의미와 미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원칙서 및 지식영서간문 등의 원본은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박재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연구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외의 고문헌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터임을 밝힌다.



Ⅱ. 한글 글꼴의 유래와 디지털폰트의 현황



II. 한글 글꼴의 유래 및 디지털폰트의 현황

2.1. 훈민정음의 탄생과 의의

한글은 다른 나라 문자에 비해 이례적인 기원과 발달과정, 그리고 이야기를 가진 독창적인 문자이다. 어느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활용되고 있는 문자체계의 초기 창제자, 뚜렷한 목적, 과학적인 원리가 모두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중국어의 표기 수단인 한자는 우리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백성들이 배워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우리의 소리를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체계를 수립하였고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에 원시적인 글자꼴에서부터 비롯된 다른 나라의 글자와는 반대로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어 처음부터 완전한 글자꼴과 표현 원리”(김진평, 2019)가 정해진 훈민정음은 세종 28년(1446) 10월에 반포되었다.

2.2.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변천과정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변천과정을 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글이 최초로 등장한 해례본을 시작으로 창제초기(1447-1459년)에 기록된 고문헌 글꼴의 형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창제초기 이후 당대 관료들에 의해 서사된 문헌을 기반으로 한글 글꼴을 살펴보았다. 셋째, 궁체정자를 ‘관료의 궁체’와 ‘서사상공의 궁체’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2.2.1. 창제초기 한글 글꼴의 변화

문헌 및 시기	훈민정음 해례본 (1446)	용비어천가 (1447)	월인천강지곡 (1447)	석보상절 (1447)	동국정운 (1448)	홍무정운역훈 (1455)
대표 글자	다	다	다	다	강	네
	소	쏘	무	부	곡	유

<표 1> 창제초기 한글 글꼴의 변화

1)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이후 해례본)에 최초로 기하학적 형태의 한글 글꼴이 등장한다. 이규복 저자의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에 “해례본의 글꼴은 서체라기보다는 각각의 직선과 사선, 원 등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모양을 모아쓰기 방식으로 도안(레터링)된 자체字體에 가깝다”고 설명한다(이규복, 2020). 즉 해례본의 글꼴은 의도된 ‘스타일’이나 외모를 갖추었다고 하기 보다는, 당시 훈민정음의 문자체계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소와 간결한 디자인으로 글자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해례본은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어 두 문자의 인상과 스타일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자 글꼴의 자유로운 곡선 표현으로 인해 서사의 노련함이 보이는 반면 한글 글꼴은 ‘ㅇ’ 꼴 외에는 직선과 사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정제된 인상을 준다. 수천 년간 한자만을 사용해오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훈민정음의 한글 글꼴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례본의 한글 자형은 기본적으로 정방형의 형태이며, 일정한 굵기의 가로획과 세로획을 기본으로 수평과 수직을 이룬다. 중성획인 ‘一’와 ‘丨’는 초성의 크기보다 길게 처리되어 있다. 자음과 모음의 획들이 서로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해례본은 제자원리를 목적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글을 처음 접했을 사람들로 하여금 글자 속 자소 형태의 혼돈을 덜기 위한 의도된 조형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치밀하게 설계된 획의 공간 처리와 배분은 획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각자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글자의 형태를 계산한 흔적이 보인다.

초기 한글 글꼴을 식별하기에 가장 쉬운 요소는 아무래도 중성 자형의 원점(·)일 것이다. 현 시대 우리 눈에 익숙한 각진 획 형태의 중성을 접하다가 해례본의 한글 글꼴 표현을 보면 원점이 눈에 뵈 수밖에 없다.

2)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1447년에 간행된 고서 3건 모두 중성의 원점들이 네모나고 각진 형태로 바뀌었다. 즉 동그랗게 그리는 원형의 점에서 굽은 획으로의 형태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붓으로 정확한 원을 그리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이규복,

2020). 따라서 동그랗게 그리는 점에서 직선으로 긋는 획 변화를 준 것은 이러한 불필요한 점을 해결한 것이다. 본래의 음가를 그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 볼 수 있다.

3) 동국정운

1448년에 간행된 <동국정운>은 앞선 간행본들과 달리 해례본의 자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동국정운은 한글의 표기 음을 규정하고자 만든 운서라는 점에서 해례본과 동일한 자형과 표기 원칙을 지켰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4) 홍무정운역훈



<그림 2> 홍무정운역훈의 한글 글꼴

홍무정운역훈의 글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1455년에 목활자로 간행된 <홍무정운역훈>의 글꼴은 그 이전의 굵기 변화 없이 직선과 사선으로 도안된 형태의 글꼴에서 탈피하여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붓으로 쓴 서체의 모양을 갖춘 글꼴로 일대 혁신을 이루었다.

방점의 형태는 원형의 점에서 붓으로 눌러 만들어낸 삼각형 모양의 점으로 변했고, 가로획 ‘一’모음에서는 부리와 맺음이, 세로획 ‘丨’모음에서는 부리와 왼쪽으로 꺾이는 맺음 형태가 나타난다. <홍무정운역훈> 글꼴의 변화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1’모음에 있다. 오늘날의 궁체와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 1년 전에 간행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의 글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로모임꼴의 초성과 중성 관계와는 확연히 달라진 형태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전 시대의 글꼴에서 볼 수 없었던 점획의 여러 혁신적인 변화와 형태들을 봤을 때 관료서체의 단초를 <홍무정운역훈>의 글꼴에서 찾을 수 있다.

5) 월인석보

<홍무정운역훈>에 최초로 필사꼴이 출현한 이후 1459년에 당대 한글 글꼴이 모두 집합된 <월인석보>가 간행되었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결합한 책으로 1권 권두에 <세종어제훈민정음>이 같이 실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월인석보> 권 1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어제훈민정음>, <석보상절>, <어제월인석보서>, <월인천강지곡>의 점과 방점은 모두 붓으로 눌러 만들어 지는 형태, 즉 삼각형 모양의 붓으로 찍는 형태로 통일되어 있다. 원형의 아래아 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월인석보>를 간행하면서 한글창제 이후 계속된 한글 글꼴의 실용화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월인석보에 간행된 ‘세종어제훈민정음’, ‘석보상절서’, ‘월인천강지곡서’

2.2.2. 관료서체

한글 창제 이후 당대의 명필로 불리는 관료를 동원해 책의 간행에 필요한 활자 자본을 제작하게 하고 관료들에게 책의 서사를 맡기기도 했다. 관료서체는 자체적으로 관료서체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글의 전반적인 글꼴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규복 저자는 “초기 관료서체는 궁 안팎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관서는 물론 내전에 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으리라 추정된다”고 한다(이규복, 2020). 한글이 창제 된지 불과 십 수 년 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한글 글꼴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관료임으로 보아 내전에서도 관료서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료서체의 형태적 특징은 관료의 필체로 서사된 문헌에서 대표 글자들을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당대 한글 글꼴의 형태들을 모두 갖추었던 월인석보가 간행되고 5년 후인 1464년에 <상원사중창권선문>(이후 권선문)이 간행되었다. 월인석보의 글꼴 중에서도 석보상절서 글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권선문 서체 특징들은 후대 관료들의 글씨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문헌 및 시기	상원중창권선문 (1464)	선조국문유서 (1593)	어제자성편언해 (1746)	고문진보언해 (영조연간)	임산예지법 (18세기)	학석집 (1809~1830)
대표 글자	맛	란	순	천	산	틴
	흐	롤	흐	을	문	홀

<표 3> 관료서체의 글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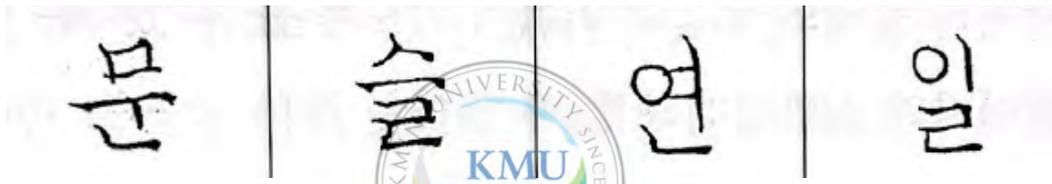
<표>에서 15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의 관료서체 글꼴 특징을 볼 수 있다. 15세기 문헌인 권선문 글꼴 특징들이 세기를 거쳐 19세기 문헌인 <학석집>의 필체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성에 비해 초성의 크기가 작아 시각적으로 글자가 세로로 길어 보인다. 글자의 무게중심이 전반적으로 중

양에 있다는 점과, 종성이 넓은 모양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관료서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규복 저자에 의하면,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형성한 서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집단, 즉 관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전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이규복, 2020).

2.2.3. 궁체정자

관료의 서체는 수렴정정으로 인해 궁 안에서 사용하던 글꼴에 영향을 주었다. ‘궁체정자’는 “서사 주체에 따라 관료의 궁체와 서사상궁의 궁체로 구별할 수 있다”(이규복, 2020).

가. 관료의 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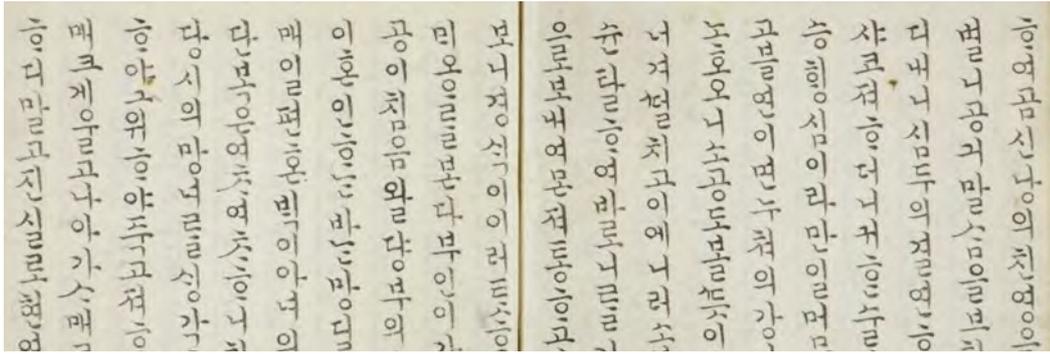
<그림 3> 어제경세문답언해 한글 글꼴 표본

관료의 궁체 정자로는 <어제경세문답언해>(1761)를 꼽을 수 있다. ‘丨’모음 세로획은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획의 시작 부분은 붓이 닿자마자 그대로 내려온 듯 얇게 형성된 형태를 지닌다. 넓은 모양의 종성은 앞에서 언급된 관료서체의 특징을 그대로 보인다. ‘ㄴ’과 ‘ㄹ’의 공간 배분을 넓게 잡고, 그 형태도 마지막 획을 꺾는 필법을 사용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 후에 획 두께의 변화 없이 평평하게 진행되다가 맺음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특징은 관료의 궁체와 서사상궁의 궁체를 판별할 때 기준이 되는 잣대로 볼 수 있다.

나. 서사상궁의 궁체

한소운의 “한글 宮體의 變貌 樣相에 관한 研究”에 따르면 창제초기 한글 글꼴의 원형이 기호로서 문자 구성 체계를 제시한 것이라면 궁체는 필사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자의 필세를 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처럼 한자의 필사 방법은 한글 서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으며, 한글 필사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단초 역할을 했다.

3) 한소운. (2014). “한글 宮體의 變貌 樣相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림 4> 옥원중회연의 한글 글꼴

서사상궁의 궁체 글꼴 특징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헌으로는 조선후기에 서사된 <옥원중회연>을 꼽았다. 옥원중회연은 송나라의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 소설을 붓으로 써서 만든 필사본이다. 이 책의 정자체와 흘림체는 여러 궁체 필사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쓴 것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움이 뛰어나 서예 교본체로 즐곤 활용되어 왔다(이정자, 2015).

관료 궁체	만	문	일	외
서사 상궁 궁체	만	문	일	외

<표 4> 관료궁체와 서사상궁 궁체 (상)어제경세문답속녹, (하)옥원중회연 11책

서사상궁의 궁체는 앞서 살펴봤던 관료궁체와는 또 다른 특징요소들을 지닌다. 반달 형태로 부드럽게 꺾이는 종성의 마지막 획과 모음 세로획이 왼쪽으로 얹게 맺히는 특징들이 대표적이다. 관료궁체와 비교해서 서사상궁의 궁체는 종성의 폭이 좁아져 글자의 전체적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2.3. 디지털폰트의 현황

한글은 창제되고 반포된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현재 디지털 폰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2019년 12월 19일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간된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글꼴 관련 업체를 60개 이상으로 파악하였다⁴⁾. 업계에서는 한글서체 시장 규모를 연 50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서체산업이 활성화된 일본(약 2000억 원)이나 미국(약 3000억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⁵⁾.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외국 문자와 다른 모아쓰기 구조를 가진 한글의 특수성이 지목된다.

2.3.1. 개발범위

가. 한글

한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자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폰트를 제작할 경우 대소문자 52자를 그리면 완성되는 라틴 알파벳과는 달리 모아쓰기 구조로 인해 방대한 양의 글자를 제작해야만 한다.

이러한 한글 폰트는 제작과 조판 방식에 따라 완성형 한글과 조합형 한글로 나눌 수 있다. 완성형의 경우, 자, 모음이 결합되어 완성된 온글자를 그려가며 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미려한 형태의 글꼴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입력 방식 또한 국가 표준으로 지정된 두벌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한글 서체가 완성형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이근형, 2018).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한글공업규격은 이러한 글자를 컴퓨터코드처리상 2,350자로 규정”(홍석일, 1997)하고 있어 글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합형으로 한글 폰트를 제작할 때는 한글의 기본 낱자인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7자를 개별로 그린 후 폰트 제작 툴을 통해 자, 모음을 결합하여 조합될 수 있는 한글 글자 11,172자를 모두 만들 수 있다. 온글자를 그려 제작하는 완성형 한글과는 달리 조합 방식으로 글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자로 보았을 때 형태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4) 국립한글박물관. (2019).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n.p.: 국립한글박물관.

5) 디지털 시대의 한글서체, 도전적이고 자유로워지다. (2019).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no=30926>.

나. 라틴 알파벳

한글과 라틴 알파벳은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글은 모아쓰기 체계를, 알파벳은 풀어쓰기 체계를 기반으로 발달되었다. 한글은 음운이 조합되어 글자가 음절별로 쓰여지는 구조로, 한 음절에 모음과 자음의 조합이 한 글자를 이루고,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고유의 소리값을 갖게 된다. 그런 반면 알파벳은 음절 (syllable)을 글자로 풀어쓰는 방식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글의 글자체계와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한글은 '낱자' 형태인 모음과 자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 겹낱자(쌍자음)를 포함한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8자의 조합으로 총 11,172개의 한글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한글 글자들은 초중성의 조합에 따라 단순한 구조부터 복잡한 구조까지 다양한 범위의 글자가 생성된다.



<그림 5> 모아쓰기 구조의 한글 글자

다양한 글자 내부구조를 가진 한글과는 달리 알파벳 체계에서는 날자가 곧 글자로, 대소문자 'a'부터 'z'까지 총 52개의 글자가 포함된다. 획의 개수, 또는 조합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벳의 글자 내부구조는 한글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글자마다 폭의 차이도 크고, 직선, 대각선, 곡선 등 알파벳 글자를 이루는 요소에 따라 양옆에 등장하는 글자와의 관계성(kerning)을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코 단순한 문자체계는 아니다. 디센더(descender)와 어센더(ascender)에 따른 소문자의 높낮이, x-height의 높이 또한 전반적인 글꼴 조형에 영향을 끼친다.

위와 같이 제자 원리가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단순한 글자 내부구조를 가진 알파벳과 다양한 글자 내부구조를 가진 한글이 혼용되었을 때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말해, 한글은 '글자 내부의 공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알파벳은 '글자간의 공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림 6>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글자 내부구조 차이



<그림 7> 한글 바탕체의 한글, 라틴 알파벳, 숫자에서 보이는 세리프의 형태

기성 한글 폰트를 살펴보게 되면 한글 명조체에는 세리프 영문이, 고딕체에는 산세리프 영문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글 바탕체의 특징인 줄기의 첫 부분과 맺음 부분의 돌기가 로마자의 시작과 끝에 맺히는 세리프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두 문자체계가 혼용되어도 이질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다. 한자

휘황찬란한 중국 문화는 수천 년에 걸쳐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문화를 매개하는 부호로서 한자는 중국 인접 국가와 지역의 응용 문자가 되었다. 한국, 북한, 일본, 베트남 등이 역사적으로 한자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한자는 오랫동안 공식 문자이자 문화 교류의 다리인 국제 문자로 존재해온 셈이다.



<그림 8> 국내 간판에 쓰이는 한글과 한자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글과 한자의 쓰임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8>6)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국한'병용(併用)'이라고 하며, 섞여 사용될 때는 국한'혼용(混用)'이라 한다. 두 문자체계가 병용되는 사례는

6) blog.naver.com/thesnowcap 블로그의 '생활속 한자공부'에서 발췌했다.

외부 간판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림8>의 ‘長壽院장수원’에서 한글과 한자의 비율을 살펴볼 때, 한자가 주기능을 하고 부기능으로 한자의 음(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의 하단에는 영문과 숫자 또한 포함되어있는 예시이다. 이때 한글과 한자는 물론 영문과 숫자까지 모두 시각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이경 양식당(李京 洋食堂)’은 한글이 주기능을, 한자가 부기능의 역할을 하고, 두 문자의 서체 스타일이 상이한 것이 확인된다. 한글 서체의 특색이 한자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한혼용 예시는 건물명(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한글과 한자의 비율이 동등할 때는 ‘雲茶빌딩’과 같이 두 문자가 각기 다른 스타일의 서체임이 더욱 확연하게 느껴진다. 한편 ‘빛쉴빌딩’의 한자와 한글은 같은 흘림 계열의 서체를 사용하고 있어 이질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靑 “42년 만의 미사일 주권 확보, 文대통령 결단과 집념 성과” 방탄소년단, 靑 최초 ‘AMA 대상’ 포함 3관왕... “새 챕터 시작”

<그림 9> 국한문 혼용의 뉴스 헤드라인

일상생활에서 국한혼용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온·오프라인 기반의 신문이다.<그림9> 특히 헤드라인(headline)⁷⁾에서 돋보이는 한자와 한글의 혼용은 주목을 받는 문구의 머리 부분에 위치해 있기에 독자의 주의를 끌게 된다. 기사의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헤드라인에 녹여야하는 특성상 국가명이나 기관명을 나타낼 때 해당어휘의 어두語頭한자를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박나리, 2020). ‘방탄소년단, 靑 최초...’ 헤드라인에서는 3음절의 ‘아시아’를 ‘亞’로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文’으로 대신하여 제한된 텍스트 분량에서 독자가 다른 의미를 떠올릴 여지가 없도록 한자의 효과를 발휘했다.

특성상 글자 수가 많지 않은 상점 간판과 건물명은 보는 이의 이목을 끌기 위해 특징이 살아있는 제목용 서체를 활용하고, 조간일간지의 헤드라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텍스트가 부드럽게 읽혀야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은 본문용 서체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 동아일보, 2021-11-22 헤드라인에서 발췌

1) KS 표준 한자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기성폰트는 한글과 영문이 한 벌의 세트로 탑재되어있는 반면, 한자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자가 탑재되어 있더라도 디폴트(default) 폰트가 유니코드에 안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영문처럼 한글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글자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념이 아닌,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만들어진 한자 4,888자를 유니코드 한자영역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서체를 ‘한글과컴퓨터’에서 비교해보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궁서체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Daehan Hospital
안상수2006굵은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Daehan Hospital
K굴림체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Daehan Hospital
서울 한강체 M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Daehan Hospital
경기천년체 Bold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Daehan Hospital

<표 5> 한글, 한자, 라틴 아라벳의 혼용

궁서체, 안상수체, 굴림체는 한글과 컴퓨터에 기본 서체로 등록되어 있다. 궁서체와 안상수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을 반영한 영문 서체가 포함이 되어있는 반면, 한자는 서체 2종에서는 동일한 디폴트 영문 서체가 등장한다. 안상수체의 경우 굵은 선 두께와 협소한 탈네모꼴의 모습을 한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궁서체는 한글과 한자의 선 두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굴림체의 경우에는 궁서체와 안상수체와는 다른 한자 글꼴이 등장하지만, 한글과 영문에서는 굴려져 있는 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 시각적 이질감을 준다.

서울특별시 전용서체로 개발된 서울 한강체와 경기도 전용서체로 개발된 경기 천년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는 각 도시의 이미지를 담아 개발되며, 콘셉트에 맞는 조형적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 도시를 대표하는 전용서체는 의미를 담아 시각적 고유성을 지니게 되고, 도심 속 길 안내판, 관광지 간판, 공공문서, 공공건물 등에 활용된다. 특히 유적지나 관광 간판지에 한자와 혼용되어 한글 전용서체가 사용되는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서체 개발 당시 한자 디자인은 누락이 되어 낯선 한자 글꼴을 마주할 때가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한민국(大韓民國)
아시아 대륙(大陸) 동북부(東北部)의	아시아 대륙(大陸) 동북부(東北部)의
한반도(韓半島)에 위치(位置)하고	한반도(韓半島)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민주(民主) 공화국(共和國).	있는 민주(民主) 공화국(共和國).
수도(首都)는 서울 특별시(特別市).	수도(首都)는 서울 특별시(特別市).

<그림 10> '바른바탕체'에 탑재된 한글과 한자

윤디자인그룹은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의뢰로 '바른바탕체' 한자 4,888자를 개발하여 2015년 11월에 시중에 배포했다. 바른바탕체 한글 폰트에 한자를 추가한 것은 한글과 어울리는 한자를 선택할 사용자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발표했다(이주현, 2015). 한글의 부리와 맺음을 한자에 적용시켜 한글과 썼을 때 조화로울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바른바탕체는 본문용 서체로 제작되었다. 한글과 컴퓨터에 기본 탑재된 본문용 서체 함초롬바탕과 함초롬돋움 역시 한자가 개발되어 한글과 혼용될 시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문용 서체는 한자 개발 및 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목용 서체는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대법원인명용한자

한글전용과 한글·한자 혼용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도 주민등록 등본, 생활기록부 등 행정적인 서류에는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자 이름을 표기하게 한다. KS표준한자 영역의 한자 4,888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명용 한자를 살펴, 한글재민 폰트를 사용하는 누구나 본인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 두 문자체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름용 한자로 불리기도 하는 인명용 한자란 우리가 이름자에 쓸 수 있는 한자이다. 관명, 아명, 태명, 별명, 호 등 이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름은 관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에서 ‘이름’은 관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종류와는 달리 관명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 절차인 출생 혹은 개명 신고를 해야만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 제한이 없는 한글과는 달리 한자는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권익기, 2018).

사용 빈도가 낮은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상대방이 겪을 불편이 상당하고 행정 전산화 추세에도 역행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월 1일 최초로 대법원인명용한자 제도를 시행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시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최근 수기보다는 기계를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사무처리 방식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날이 발달되고 있어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사용 빈도가 많은 순서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구분	시행일	내용	추가 선정 한자	선정 한자 총 수
최초선정	1991.01.01	한국 교육용기초한자 선정 한국산업표준한자 선정 인명 사용 많은 한자 선정	1,800 894 37	2,731
1회 추가	1994.04.01	수렴 의견 반영 인명용 한자 첨삭	125	2,856
2회 추가	1994.09.01	항렬자 추가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인명 사용 많은 한자 추가	108	2,964
3회 추가	1998.01.01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75	3,039
4회 추가	2001.01.04	한국산업표준한자 추가	1,840	4,879
한자변경	2003.12.20	한문 교육용기초한자 변경 반영	0	4,879
5회 추가	2005.01.01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159	5,038
6회 추가	2007.02.15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113	5,151
7회 추가	2010.03.01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303	5,454

8회 추가	2013.07.01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307	5,761
9회 추가	2015.01.01	한국산업표준한자 추가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2,381	8,142
10회 추가	2018.08.31	요청 인명용 한자 추가	137	8,279

<표 6> 대법원인명용한자의 변화

인명용 한자는 1991년 1월 1일 2,731자로 최초 시행된 후 2-3년에 한번씩 9차례에 걸쳐 추가 선정하여 2015년 1월 1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인명용 한자는 한문 교육육기초한자 1,800자와 인명용으로 허용한 6,342자를 합하여 8,142자까지 확대되었다(권익기, 2019). 3년 후인 2018년 8월 31일 인명용 한자를 한 차례 더 확대시켰다.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을 포함한 137자를 추가하여 총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개정된 이유는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3) 한국한자

한국한자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지거나 뜻이 더해진 한자로, 한국제 한자, 한국 한자, 한국 고유 한자, 조선 한자로도 불린다. 한자는 회의나 형성의 제자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자문화권에 속한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자국(自國)에는 있지만 중국에 없는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고자 본국 한자가 만들어졌으며, 중국에서도 역시 특정 지방에서만 쓰이는 방언자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분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의 선조들이 한국의 인명과 지명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 개발한 한국한자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한자의 수량은 고문헌 자료의 발굴에 따라 확장되고 있으며,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렵다(김은희, 2021).

2.3.2. 국내 무료폰트의 현황

2000년대에 이르러서 글꼴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용서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배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전용서체를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양질의 전용서체 무료폰트를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용서체의 특성상 조직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문자적 도구로 디자인되므로, 기업의 특색이 도드라진 폰트가 많아 일반인이 사용하게 될 시에는 활용성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식별성이 강한 탓에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 또한 국내 무료 전용서체 사용에 있어 한계점으로 떠오른다.

기업 전용서체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 및 공유되는 무료 한글 폰트, 특히 제목용 폰트들은 같은 스타일의 라틴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도 한자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Ⅲ. 고문헌 필체 기반의 한글 디지털폰트 기초연구



III. 고문헌 필체 기반의 한글 디지털폰트 기초연구

3.1. 고문헌 필체 기반의 한글 디지털폰트

미술평론가이며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은 1990년대 초 선풍적 인기를 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표지 디자인을 위해 조선 시대 서적인 <언간독諺簡讀>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를 찾아 직접 집자하였다.<그림11> 많은 고문헌 중 특별히 언간독의 서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자 유홍준 교수는 “붓글씨가 가지고 있는 유려함과 목판 글씨의 칼맛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멋있어서 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문헌의 옛글자체를 기반으로 한 폰트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성격의 폰트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11> ‘언간독’에서 집자한 글자로 만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다채로운 디자인의 폰트 개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 아카이빙의 기술 발전 아래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문헌의 글꼴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폰트는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옛글자체를 디지털폰트로 제작한 기성 사례들을 보면 기반이 된 고문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문헌을 기반으로 해도 어떻게 재해석하냐에 따라 폰트의 전체적인 인상이 바뀔 수는 있지만 더욱 다양한 문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1.1. 복원과 재해석

고문헌 기반의 폰트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폰트 개발사들은 ‘재해석’과 ‘복원’이라는 단어를 혼용, 또는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고문헌의 글꼴을 디지털 환경으로 불러와 폰트로 제작하는 과정을 모두 ‘재해석’의 범주에 든다고 정의한다. 옛글자체를 기반으로 폰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복원’과 ‘재해석’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고, 명칭을 바로 잡아 본 연구에서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가. 복원의 개념



<그림 12> 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복원(復元, Reconstruction)은 사물을 원래의 모습이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즉 본연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의 것을 다시 본디의 상태로 최대한 회복하는 일을 뜻한다. <그림12>은 석기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토기다. 군데군데 매꿔진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찾지 못한 파편들을 그대로 두고 퍼즐처럼 맞춘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이 토기의 형태를 보수하기 위해 매꿔진 틈들도 보인다. 이와 같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 ‘복원’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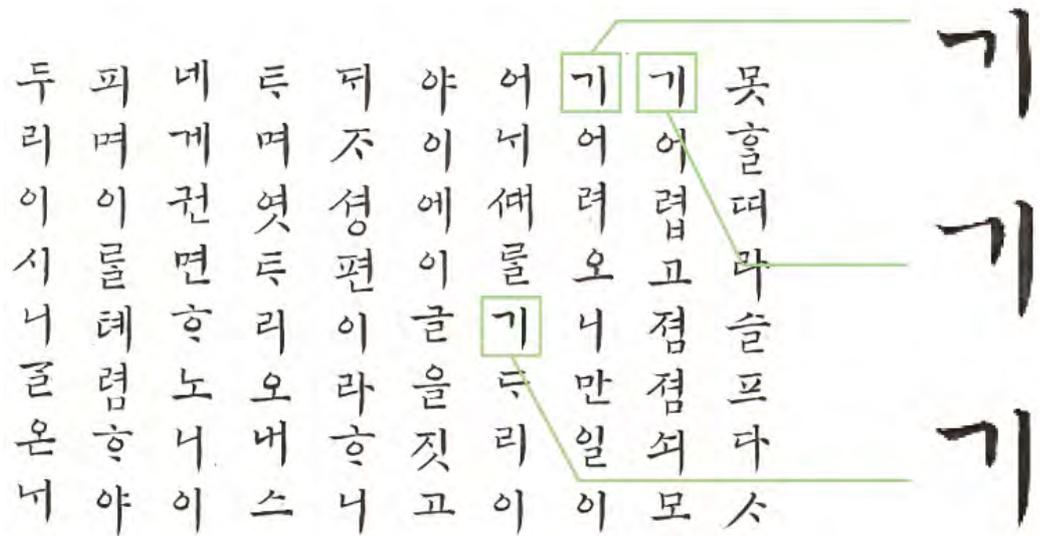
<그림 13> ‘임산예지법’ 서체 복원 프로젝트

<그림13> 은 연구자가 소속된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에서 2020년에 진행한 서체 복원 작업이다. 바탕이 되는 고문헌인 임신예지법은 임신한 여인이 출산 과정 속에서 숙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자료이다. 조선 왕실의 출산 지침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임신예지법은 두 개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임산주의서’에 실린 ‘임산예지법’ 내용이다. 장서각 소장본의 결락된 후반부 내용을 수집하였고, 국내 원본의 필체를 살려 문서를 복원하였다. 원본에 자소를 집자방식으로 소실된 312글자를 원본에서 집자하여 사라진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를 되살린 것이다. 글꼴 ‘복원’의 범주는 위의 사례와 같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의 것을 집자 방식을 통해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글 옛 글씨를 폰트로 제작하여 보유한 개발사의 폰트 소개글을 살펴보면 ‘복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무시한 채 쉽게 차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고문헌에 등장하는 글꼴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복원작업은 불가능하다. 기반이 된 문헌이 같은 저자를 통해 서사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같은 글자도 글자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나. 재해석의 개념

1746년에 편찬된 <어제자성편御製自省篇>은 영조가 정사의 여가를 틈타 경전과 역대사서들에서 자기자신을 수양하고 정치에 잘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항목들을 뽑아 편찬한 책이다(국어국문학자료사전). <그림14>의 글꼴은 어제자성편을 풀이한 언해서(諺解書)의 일부에서 발췌한 것이다. 해당 문헌은 세로짜기로 정리되어 있으며 글꼴은 정연하고 흘림이 없다. 글꼴을 살펴보면 같은 글자 ‘기’임에도 글자의 꼴이 전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적 구조와 조형적 특징은 세 글자 모두에서 비슷하지만, 세로획과 가로획의 두께와 길이, 부리의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다.



<그림 14> 어제자성편언해서의 서로 다른 글자 모양

디지털폰트의 경우에는 붓글씨에서 나타나는 비고정적인 글자꼴과는 다르게 고정적인 글자꼴을 생성하기 때문에 일정한 서체 스타일을 정하여 모든 글자에 일관되게 적용시켜야 한다. 따라서 문헌 글꼴을 기반으로 폰트디자이너의 주관에 따라 디자인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폰트의 전반적인 인상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폰트 제작과정을 감안했을 때, 원본 본연의 모습을 디지털폰트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글꼴 ‘복원’보다 글꼴 ‘재해석’이 올바른 표현으로 자리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3.1.2. 사례조사

고문헌의 옛글자체를 디지털 환경으로 소환하여 폰트로 재해석한 사례의 선정 기준은 2019년 12월 19일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보고서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업체 32곳 중 옛 문헌을 기반으로 폰트를 개발한 업체와 사례는 <표1>과 같다. (주)디자인210⁹⁾은 해당 보고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고문헌 한글 글꼴 폰트 시리즈를 다수 개발하여 포함하였다. 폰트전문업체에서 개발한 옛 글꼴 서체 중에서도 바탕이 된 고문헌을 밝힌 사례만을 기준으로 한다. 옛 글꼴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지만 원고 문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서체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8)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019년에 발간한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9) 디자인210은 2014년에 설립된 폰트 전문업체이다

가. 옛글꼴 기반의 폰트

개발사	폰트명	글자 표본	문헌/시기
윤 디 자 인	만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훈민정음/1443년
	간이벽은방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간이벽은방/1525년
	월인석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월인석보/1459년
산 돌 커 뮤 니 케 이 션	구운몽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구운몽/1678년
	남계연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남계연담/조선 후기
	삼국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삼국지/1859년
	송강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송강가사/1690년대
	여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사서/1736년
	옥원중회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옥원중회연/조선 후기
	용비어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용비어천가/1447년
	월인천강지곡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월인천강지곡/1449년
	증수무원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증수무원록/1796년
	척사륜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척사륜음/1839년
	화릉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화릉도/ ?
해 음	정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훈민정음/1443년
	의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원행음묘정리의례/1795년
채희준	청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오륜행실도/1797년
작지 소프트	J오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오륜행실도/1797년

디 자 인 210	석보상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석보상절/1447년
	월인석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월인석보/1447년
	목우자수심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우자수심결/1467년
	여씨향약언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씨향약언해/1518년
	정속언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속언해/1518년
	송강가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송강가사/1690년대
	지장경언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조선 세조
	사략언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삼구사략언해/1772년
	화릉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화릉도/미상
	춘향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춘향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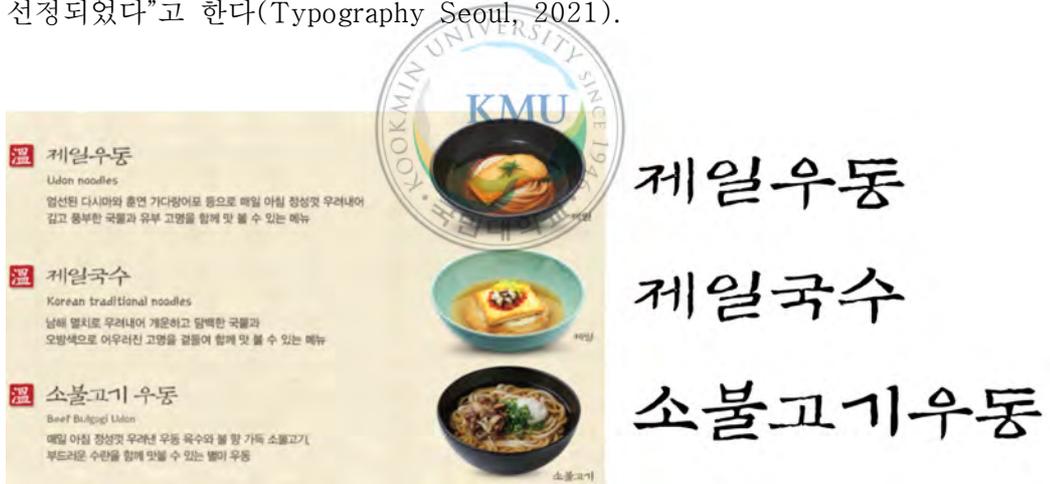
<표7> 고문헌 옛글자체 기반의 디지털폰트 사례

<표1>을 살펴보면 같은 문헌의 글꼴을 기반으로 디지털폰트를 제작한 업체들이 눈에 들어온다. 동일한 문헌을 중심으로 글꼴의 특징을 취해 디지털폰트로 재해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폰트의 기반이 된 문헌을 살펴보면 모두 고서임이 확인된다. 옥원중회연(玉駕重會緣)의 경우 책 21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들은 모두 궁체 정자체와 흘림체를 붓으로 써서 만든 필사본인데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는 궁체 정자체로 작성된 책에 나오는 글자들을 기반으로 옥원중회연체를 개발하였다. 디지털 장서각에서 보유하고 있는 옥원중회연 책 16권 중 9권이 궁체 정자체이며 각 책은 70여 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집자가 가능한 글자의 수와 자소의 조합이 충분하다. 한 벌의 폰트를 제작하기 위해 할애되는 시간이 상당히 기 때문에 대상 문헌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서 선정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훈민정음, 월인석보, 오륜행실도 등 인지도가 있고, 한글 글꼴의 역사에 있어서도 방점을 찍은 문헌들이 중복 되었을 것이다(이규선, 김민, 2020).



<그림 15> 2003년 '(주)윤디자인그룹'에서 개발한 '월인석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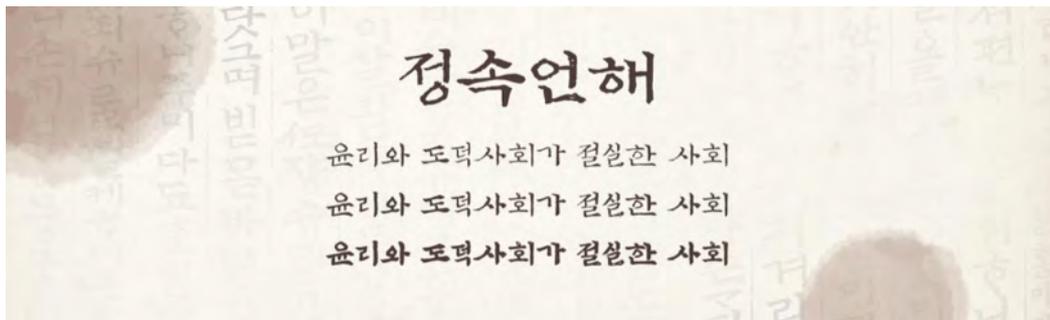
1989년에 설립된 (주)윤디자인그룹은 2001년에 '훈민정음의 획을 그대로' 살린 Yoon만월체를 선보였다. 이후 2003년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우리문화원형 복원디지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고문서 및 전통문양의 디지털 폰트 개발'¹⁰⁾에 참여하여 월인석보체와 간이벽은방체 2종을 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추천을 통해 여러 고문서 중 월인석보와 간이벽은방이 이 프로젝트의 복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Typography Seoul, 2021).



<그림 16> (주)산돌커뮤니케이션의 옛멋글씨 이용 사례

1997년에 설립된 (주)산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0월 9일날 한글날을 맞아 옛 문헌의 글꼴을 재해석하는 데 힘을 기울여 용비어천가, 구운몽, 월인천강지곡 등 옛글씨 12종과 고어 2,000자를 재해석한 '옛멋글씨' 패키지를 출시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새로운 시도로 호응을 얻었다(이성수, 최병목, 2008).

10) 2003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우리문화원형복원디지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그림 17> 디자인210 ‘뿌리 깊은 프로젝트’ 정속언해체 두께 3종

디자인210은 2014년에 설립된 글꼴개발업체로, ‘뿌리 깊은 프로젝트’라는 무료폰트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5세기에서 20세기의 고문헌 속 한글 글꼴을 디지털폰트로 재해석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여씨향약언해, 춘향전, 정속언해 등을 포함한 폰트 10종을 개발했다. 눈여겨볼 점은 폰트 10종은 모두 두께 3종(bold, regular, light)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윤디자인	해움	EBS	문화체육부	타이포디자인랩	한글과컴퓨터
해례본 원본 (1446)	만월 (2001)	HU정음 (2010)	EBS훈민정음 (2014)	훈민정음체 (2016)	타이포-세종대 왕(2018)	한컴훈민정음 세로쓰기(202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래래래래래래래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육육육육육육육 </div>						

<표 8> 훈민정음 해례본 글꼴 기반의 디지털 폰트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최초로 등장한 문헌이 훈민정음인 만큼 많은 글꼴업체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표8>에 나오는 윤디자인그룹, 해움폰트 외에도 EBS, 문화체육부, 그리고 타이포디자인연구소에서 훈민정음의 글꼴을 디지털폰트로 재해석하여 배포하였다. 훈민정음 글꼴의 가장 큰 특징인 중성 자형의 원점이 재해석폰트 5종에 모두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성의 크기, 폰트의 질감과 정도, 획의 두께 등 훈민정음 원본의 글꼴에서 취한 특징들이 다양하다. EBS훈민

정음체와 타이포-세종대왕체는 획의 시작과 맺음에 판본 특유의 유기적인 느낌을 부여하지 않고 직각으로 처리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이렇듯 훈민정음의 한글 글자꼴을 바탕으로 디지털폰트를 제작한다고 하면, 디자이너의 안목과 취사선택에 의해 원본의 특징들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글꼴의 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기초 연구> 중 저자는 “시중에 통용되는 훈민정음 글꼴(폰트)은 대부분 완전 자소의 감각을 살리면서 현대 글꼴의 제약 조건하에서 제작된 절충식 글꼴이며 따라서 원전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최향인, 이성진, 박경완).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한글과컴퓨터와 윤디자인이 공동으로 ‘한컴 훈민정음 세로쓰기’ 폰트를 제작하였다. 윤디자인 편석훈 대표는 “훈민정음 기반의 글꼴은 전에도 있었지만 대개 현대적 재해석을 많이 가미”했다며 한컴 훈민정음 세로쓰기는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차별화”¹¹⁾했다고 한다. 앞서 밝혔듯이 복원을 하였다고 해도 디지털폰트의 제작과정에 제약 조건들에 의해 원본 글꼴의 완전한 보존은 불가능하다.



11) 2020년 12월 7일 조선일보 기사 “훈민정음 옛 자모 되살려 글자 163만개 만들었죠”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maL_moi/2020/12/07/VHBDGNNY5BW3HVDF5ANICQWHA/

송강가사	
디자인210	산돌
송강가사 송강가사	
화룡도	
디자인210	산돌
화룡도 화룡도	
월인석보	
디자인210	윤디자인
월인석보 월인석보	
오륜행실도	
채희준	직지소프트
오륜행실도 오륜행실도	

<표 9> 고문헌 기반의 폰트 디자인

<표3>은 같은 문헌을 디지털 환경으로 소환하면서 다르게 재해석한 폰트 8종의 예시이다. 판본 유형의 문헌을 기반으로 한 폰트 송강가사, 화룡도, 월인석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판본의 질감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인210의 화룡도체는 산돌에서 출시한 화룡도체와는 달리 질감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화룡도 글자체의 특징인 세모꼴의 ‘ㅇ’ 형태는 디자인210과 산돌 폰트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확인된다. 오륜행실도를 바탕으로 재해석된 채희준¹²⁾과 직지소프트¹³⁾의 오륜행실도체는 스타일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채희준의 오륜행실도체는 정제된 획의 형태로 현대적인 느낌을 더욱 가미했으며, 직지소프트의 오륜행실도체는 붓글씨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재해석한 사례이다.

12)채희준 디자이너는 ‘청월’ 외에도 청조(2017), 초설(2019), 고요(2020) 등을 제작한 폰트 디자이너이다 <https://chaeheejoon.com/>

13)직지소프트는 2004년에 설립된 폰트 개발업체이다

나. 필사 유형의 폰트

한글 폰트에는 한글, 라틴 알파벳,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및 문장부호(특수문자)가 탑재되어야 비로소 한 벌의 폰트를 이루게 된다. 옛 문헌의 글꼴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폰트들은 보통 판본체나 필사체의 특징들을 한글 자소에 담게 된다. 라틴 알파벳, 숫자, 그리고 문장부호에도 한글 자소에 담은 특징들을 대입하게 되는데, 특히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판본 특유의 질감이나 붓의 흔적을 적용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글과 더불어 옛글꼴 기반의 폰트에 탑재되어 있는 라틴 알파벳, 숫자, 그리고 문장부호가 동일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표로 윤신궁체, 산돌 남계연담, 산돌 옥원중회연, 그리고 J오륜의 글자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윤신궁체

한글날 576돌/Hangeul Proclamation
£45=\$1.28=₩1,597=¥165.71
#동해물과 #Mount Baekdu

‘윤신궁체’의 라틴 알파벳에서 한글에 나타나는 흘림의 특징들을 볼 수 있다. 특수문자 ‘=’의 가로획이 이어지듯 제작되었고, 획순에 따라 ‘#’의 가로획과 세로획도 흘러쓴 듯 표현되었다. 한글의 가로획과 세로획들은 알파벳과 특수문자에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다.

Sandoll 남계연담

한글날 576돌/Hangeul Proclamation
£45=\$1.28=₩1,597=¥165.71
#동해물과 #Mount Baekdu

‘산돌 남계연담’체 한글의 특징은 글줄의 흐름과 획의 두께가 일정치 않다는 것이다. 글꼴의 기본적인 획의 형태(가로획과 세로획)를 라틴알파벳과 특수문자에 적용했다. 라틴 알파벳 소문자의 경우 글자들이 베이스라인(baseline)을 기준으로 불규칙하게 상하로 이동시켜 한글의 불균형한 글줄 흐름을 표현했다.

Sandoll 옥원중회연

한글날 576돌/Hangeul Proclamation
£45=\$1.28=₩1,597=¥165.71
#동해물과 #Mount Baekdu

‘산돌 옥원중회연’체와 위의 ‘산돌 남계연담’체는 같은 폰트 개발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비슷한 궁체 계열의 두 서체에 탑재된 라틴 알파벳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적용된 세로획의 돌기와 맺음은 각 서체의 특징을 가져오되, 글자의 전반적인 뼈대는 동일하다. 알파벳 ‘M’, ‘P’, ‘a’, ‘k’의 조형에서 두 서체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J오류

한글날 576돌/Hangeul Proclamation
£45=\$1.28=₩1,597=¥165.71
#동해물과 #Mount Baekdu

‘J오류’체의 라틴 알파벳과 한글이 혼용되었을 때 시각적 이질감을 형성한다. 네모틀에 꼭 채워지도록 개발된 한글 글자들과는 달리 라틴 알파벳은 장체의 형태를 띤다. 날카롭게 맺어지는 한글의 세로획 특징을 라틴 알파벳의 세부요소로서 대입하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대입한 사례이다. 한글과 알파벳의 획 두께 차이 또한 한영혼용 문구에서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위의 폰트 4종과는 달리 특수문자에 서체 특징을 온전히 담지 못하였다.

<표 10> 필사 유형의 옛글꼴 기반 폰트

IV. 사자관체를 기반으로 한 한글재민체 폰트 디자인



IV. 사자관체를 기반으로 한 한글재민체 폰트 디자인

4.1. 사자관의 신분과 역할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한의원개원칙서와 같은 조선의 공식문서는 사자관체로 기록되었었다. 조선 초에는 별도의 사자관 없이 글씨를 잘 쓰는 문신을 선발하여 담당하게 하였다가, 선조 때부터는 사자관이라는 균직을 주어 근무하게 하였다. 당시 사자관은 승문원(承文院) 소속 관원으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문서를 필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박용만, 2021). 그 시초가 조선의 명필 한호(韓濩, 1543-1605)로, 국민들에게는 한석봉(韓石峯)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림 18> 한호의 필적 - 석봉한호해서집 中, 서울역사박물관 소재

4.2. 사자관 필체 사례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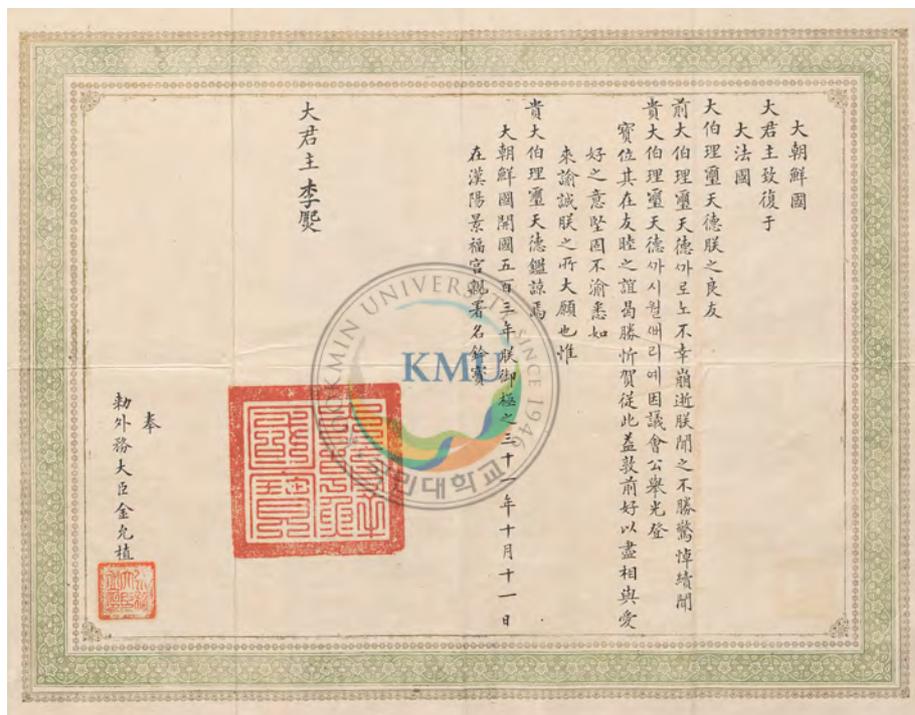
4.2.1. 사례조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의원개원칙서에서 사자관의 필체를 발견하고 같은 시기인 구한말에 사자관에 의해 기록된 왕실 공식 문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고문서는 개원칙서와 같이 모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필사되었다.

가. 왕실 고문서

2020년 2월 27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전 원장의 안내로 장서각이 보유하는 자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장서각’ 웹사이트를 통해 장서각이 소장하는 고문헌 전문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18만여 점의 소장품 중 4만여 점은 웹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없는데, 장서각 방문을 통해 구한말에 작성된 4건의 왕실 고문서 스캔본과 각 문서의 내용을 전달 받았다.

1) 왕실 고문서 622



<그림 19>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62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1894년)

프랑스 대통령 사디 카르노(Sadi Carnot)가 서거하고 장 카시미르(Jean Casimir-Perier)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호를 지속 하자는 내용으로 보내기 위해 작성한 국서이다. 1894년(고종 31) 10월 11일에 작성하였고, 고종의 친필 서명과 “大朝鮮國寶(대조선국보)”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2) 왕실 고문서 613



<그림 20>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613,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18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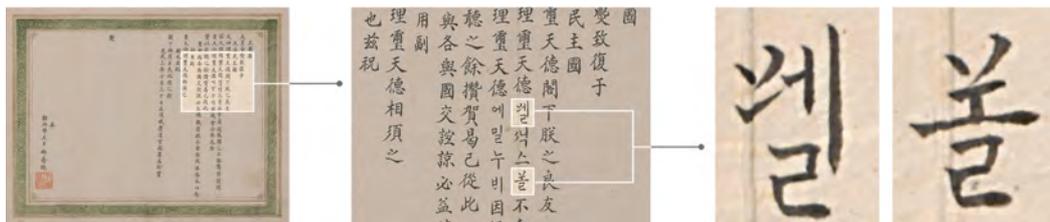
프랑스 대통령 장 카시미르 페리에가 몰리나고 펠릭스 포르(Felix Faure)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화평한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이다. 1895년(고종 32) 5월 3일에 작성하였고, 왕실고문서 622<그림 19>와 동일한 국새가 찍혀 있다.

3) 왕실 고문서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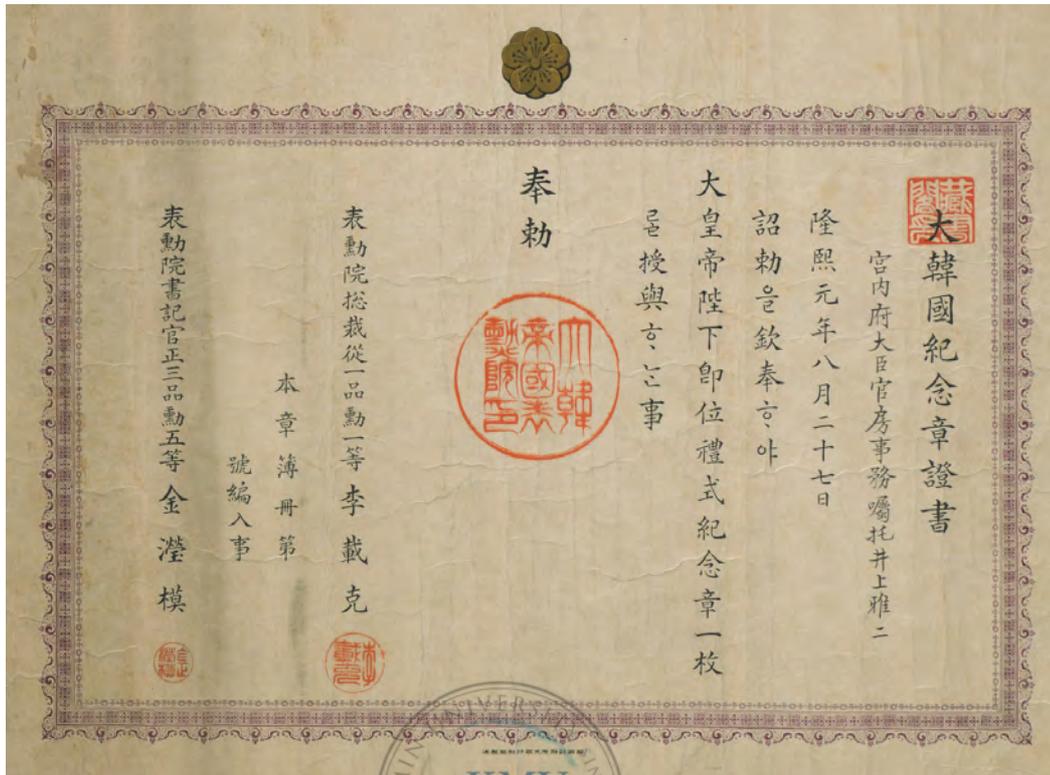
<그림 21>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61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1899년)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 포르가 서거하고 에밀 루베(Emile Loubet)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자 고종 황제가 즉위 축하와 더불어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이다. 1899년(광무 3) 10월 30일에 작성하였고, 말미에 고종의 어휘(御諱)가 써어 있다. 본 문서에 표기된 서거한 대통령의 이름 'Felix Faure'가 독특한 형태의 'ㅍ'을 하고 있다. 외국어 발음 'f'를 'ㅍ'으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어 첫 가로줄기가 제거된 'ㅍ'의 형태는 다른 문헌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그림 22> 왕실고문서 617에 나타나는 'ㅍ'의 형태

4) 왕실 고문서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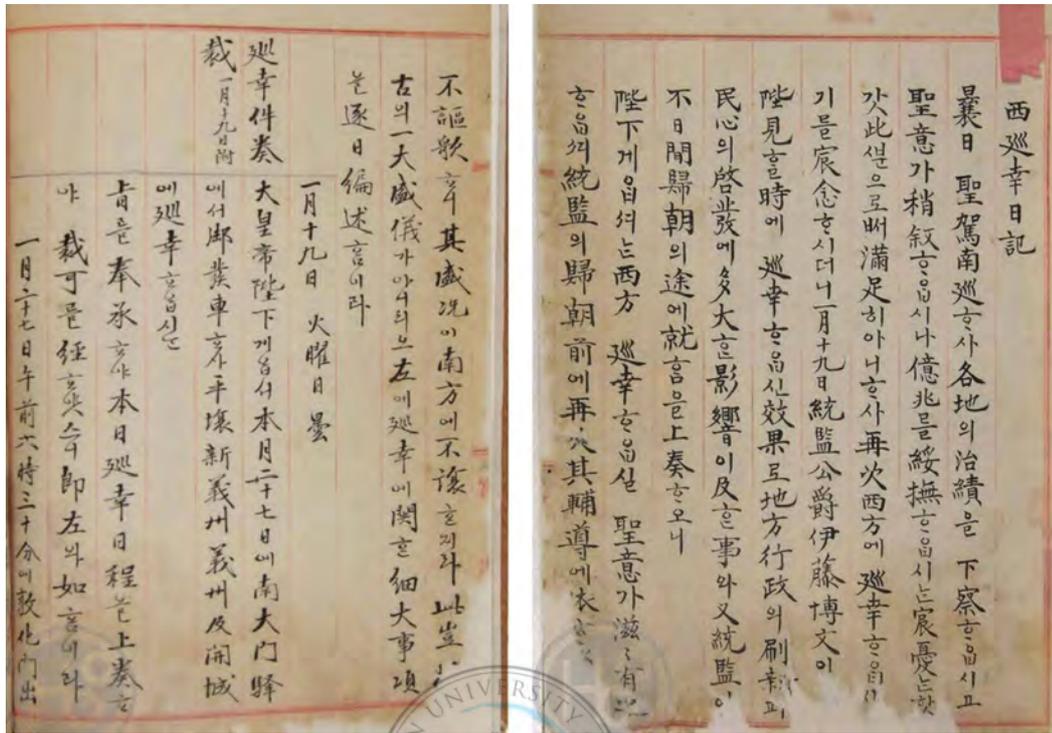


<그림 23>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102,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1907년)

순종황제의 즉위 예식을 기념하여 表勳院에서 순종황제의 조칙을 받아 궁내부 대신 이노우에 마사지에게 수여한 증서다.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고종황제가 물러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였다. 이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 체결되어, 일본인의 관리임용이 허용되었다. 이노우에 마사지 또한 이때 임명된 인사이다.

1894년부터 1907년 사이에 작성된 외교문서 4건 모두 유사한 필체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에 기록된 대한의원개원칙서와 같은 시기에 서사된 문헌들로 확인 되었고 사자관체의 절정을 이루는 글꼴로 판단하게 되었다.

나.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그림 24> 화봉 소장 서순행일기

<서순행일기>는 1909년 1월 27일부터 7박 8일간 순종황제가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방의 순행 일지를 기록한 국한문혼용 고문헌이다. 총 139장으로 이루어진 본 문헌은 “일제가 민심을 회유하고 합방의 명분을 찾으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¹⁴⁾자료이다.”

4.2.2. 사자관체의 정의

구한말에 기록된 개원칙서와 유사한 시기에 남겨진 4건의 외교문서와 서순행일기 속 글꼴을 살펴보았다. 같은 사자관이 필사했다고 해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사자관의 필체는 특정 글꼴 계보에 따라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명필 한호의 계보에 따라 발전되고 정립된 사자관체는 조선의 공식문서에 사용된 필체로, 강건한 기개를 갖춘, 날렵한 세로획과 부드럽고 완만하게 맺히는 가로획으로 구성되었다.

14) <그림 24>의 서순행일기는 제 84회 화봉 오프라인 옥선에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http://www.hwabong.com/eng/_auction/index.php?said=54&sacid=&sfl=&stx=&sst=ag_estimated_price&sod=desc

4.3. 한글재민체 개발 개요

4.3.1. 개발 목적

구한말 사자관의 붓글씨 글꼴을 연구하여 재해석 폰트로 디자인한 한글재민체 개발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폰트의 구성을 한글, 라틴 알파벳, 특수문자 디자인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한자와 한 벌을 이룬 부분이다.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제목용 폰트들은 한 벌의 폰트 구성에 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한자의 방대한 개발스펙과 사용에 대한 빈도수가 낮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제목용 폰트의 한자 부재는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글과 조화롭지 못한 엉뚱한 모습의 한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글디자인과 동일한 조형 요소를 한자디자인에 적용하여 한글, 한자, 알파벳과의 어울림을 최적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폰트 한 벌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것에 있다.

둘째는, 재해석폰트의 상용화 과정을 통해 고문서에 담긴 내용과 글꼴의 미적 가치와 더불어 우리 조상의 창의적인 발상이 담긴 한국 고유한자를 재조명, 발굴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인 대한의원개원칙서 외에도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문헌의 옛 한글과 한자의 표현과 전통성을 이어나가고, 문화유산 디자인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는 사자관체라는 새로운 고문서 붓글씨 폰트디자인의 장르를 구축하고, 사자관 붓글씨 글꼴만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구현하여 심미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날카롭고, 단단하고, 날렵하게 표현한 세로획과 부드럽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가로획은 내유외강(內柔外剛)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상징적 의미를 조형적 표현으로 형상화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글꼴로 완성한 것이 한글재민체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다.

4.3.2. 개발 추진팀 체계

재해석폰트 한글재민체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과 국민대학교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가 공동개발한 산물이다. 2019년 1월, 박재갑 교수는 의학박물관 로비에 전시된 개원칙서의 글꼴에 주목했다. 평생을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매

진해은 외과의사인 그는 평소 미술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남달라 개원칙서에 담긴 의학적 가치는 물론 한글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같은 해 3월 14일 박재갑 교수는 당시 국립한글박물관 박영국 관장,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의 김민 교수, 박윤정 교수를 초대하여 칙서의 원본과 내용을 공유했고 필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서체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15년 전부터 시인 윤동주, 신영복, 천상병의 육필복원에 의한 폰트 디자인 경험이 풍부했던 김민 교수는 이에 응했고 연구자를 포함한 글꼴개발팀을 출범하였다. 백성들에게 ‘의술의 보급과 진흥을 꾀하고자 대한의원을 창설’했음을 선포한 순종 황제의 뜻과 아울러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에 의거하여 재해석폰트의 이름을 ‘한글재민(在民)’으로 지었다.

4.3.3. 개발 범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글재민체는 ‘한 별의 서체’에 초점을 둔 폰트 개발 사례이다. 한 별의 한글 폰트가 완성되려면 기본적으로 함께 쓰이는 영문, 숫자와 문장부호 등을 일관된 모습으로 디자인·개발하게 된다. 한글재민체가 앞서 분석한 재해석 및 복원 폰트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유니코드의 한자영역에 해당하는 한자 글꼴까지 제작하여 탑재했다는 것이다. 제목용 글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재민체는 현재까지 총 세 번의 변화를 거듭해 한글재민1.0부터 3.0까지 매년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구분	연구 및 제작 기간	배포일	개발범위
한글재민1.0	2019.03 ~ 2020.09	2020년 10월 9일	*KSx1001 한글 2,350자 *Basic Latin 94자
한글재민2.0	2020.11 ~ 2021.09	2021년 11월 3일	*KSx1001 한자 4,888자 추가
한글재민3.0	2021.01 ~ 2022.04	2022년 5월 25일	*대법원지정인명한자 3,794자 추가 *Basic Latin 94자 수정보완

<표 11> 한글재민체의 개발 범위

4.4. 한글 개발

한글재민1.0은 한글, 로마자, 숫자 및 문장부호를 포함한 한 벌의 서체로 제작되었다. 개발을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제작이 완성된 2020년 10월까지 한글재민1.0의 한글 글꼴은 크게 세 번의 조형적 변화를 거쳤다. 1차부터 3차까지 한글재민 한글의 조형을 발전시킬 때마다 기반이 되었던 개원칙서의 글꼴을 수차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4.4.1.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필체 분석

훈민정음이 반포된 시기는 개원칙서가 작성되기 무려 4세기 이전인 조선조 4대 임금 세종 때의 일이었지만 이후로도 오랜 시간 주된 글로 사용된 것은 한글이 아닌 한자였다. 표의문자인 한자를 표음문자인 정음(正音)으로 언해 하면서 국한문혼용체가 습합되었다(서강선, 2012). 당시 개원칙서와 같은 왕실 공식문서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글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에 나타나는 한글은 문장 내에서 독립된 구체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조사, 접속사, 접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 글자의 개수 및 유형

개원칙서에서 발췌한 한글 글자의 수는 총 107자이다. 이는 중복되는 글자를 포함한 숫자로, 미포함 할 경우에는 총 33자에 불과하다. 초성 14자와 글자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된 한글 글자의 개수와 종류를 <표12>에 정리했다. 아래아(·)가 포함된 글자는 모두 ‘고어’ 항목에 포함시켰다.

	가로모임 민글자	가로모임 받침글자	세로모임 민글자	세로모임 받침글자	섞임모임 민글자	섞임모임 받침글자	고어	총 글자 수
ㄱ	2		3	1	2			8
ㄴ	4		1				4	9
ㄷ	1						2	3
ㄹ	3		3	3				9
ㅁ								0
ㅂ	1							1
ㅅ								0
ㅇ	25		1	10	10			46
ㅈ	3							3
ㅊ								0
ㅋ	1	2	1					4
ㅌ								0
ㅍ								0
ㅎ	1						23	24
	41	2	9	14	12	0	29	107

<표 12> 대한의원개원칙서 글자의 개수와 종류

초성 ‘ㄱ’, ‘ㄴ’, ‘ㄷ’, ‘ㄹ’, ‘ㅇ’으로 조합된 글자는 개원칙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섞임모임 받침글자 또한 원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조의 글자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조의 글자는 총 41자의 가로모임 민글자였다. 섞임모임 받침글자 외에 가장 적게 등장한 글자 구조는 총 2자의 가로모임 받침글자로, 모두 초성 ‘ㅋ’과 조합된 글자들이었다.

글자 수가 한글 완성형 폰트를 구성하는 2,350자의 1.4%밖에 되지 않아 주어진 문서의 포맷과 자소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ㄱ				ㄴ						
가	가	고	고	곰	과	과	나	니	니	
ㄴ			ㄷ		ㄹ					
니	노	느	느	느	느	다	디	디	라	라
ㄹ			ㅂ		ㅇ					
러	로	로	로	를	를	바	야	야	야	
ㅇ										
야	야	야	야	어	어	에	에	에	에	에
ㅇ										
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ㅇ										
은	은	은	은	을	을	을	을	을	을	을
										ㅈ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저
ㅈ	ㅋ			ㅎ						
자	지	게	견	컨	코	히	흐	흐	홀	흐
ㅎ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흔
ㅎ										
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표 13>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107자 발체

나. 궁체와 비교분석

옥원중회연 21권 중 11권의 궁체정자와 개원칙서의 필체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조형적 차이를 1)세로획의 형태, 2)기울기, 3)꼭지점, 4)결줄기, 그리고 5) 'ㅇ'의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1) 세로획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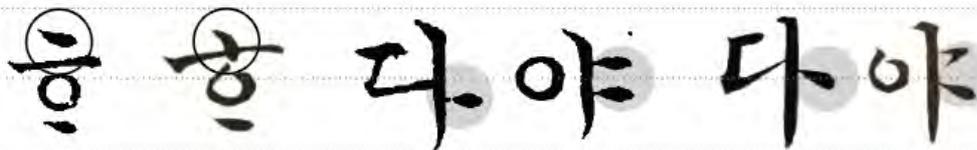
옥원중회연의 세로획 첫돌기는 좌측으로 기운 형태를 한 반면, 개원칙서의 첫돌기는 수직형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다. 맺음에서도 두 글꼴은 차이를 보인다. 옥원중회연의 맺음은 첫돌기를 상하로 반전 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원칙서의 맺음은 아래로 곧게 뻗는 형태를 갖춘다.

2) 기울기



옥원중회연과 개원칙서의 가로획 기울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수평에 가까운 옥원중회연 글자의 가로획과는 달리 개원칙서의 글자들은 약 30°의 비탈진 기울기를 주어 날렵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남긴다.

3) 꼭지점 / 4) 결줄기



옥원중회연의 'ㅎ'꼴 꼭지점은 수평에 가깝게 누워있는 반면, 개원칙서의 꼭지점은 수직으로 가로획에 닿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옥원중회연 모음의 결줄기는 수직으로 뻗지만, 개원칙서의 결줄기는 하단에 방울로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ㅍ'의 결줄기는 흘림의 형태를 보여 식별 역할을 한다.

'ㅇ'꼴의 형태

야은이 야은이

정 원에 가까운 옥원중회연의 'ㅇ'꼴에 반해 개원칙서는 열린 'ㅇ'꼴의 모습을 한다.

<표14> 옥원중회연과 개원칙서 글자 비교 [좌]옥원중회연 [우] 개원칙서

디자인적 측면에서 옥원중회연의 글자들은 네모틀 구조에 맞춰 넣은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원칙서의 글자들은 그보다 장체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두 글꼴의 차이는 필압(筆壓)과 필속(筆速)에서도 볼 수 있다. 칩서의 세로획들은 상단에서 빠르게 하단으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곧게 떨어지다가 날렵하게 맺어지고, 가로획들은 붓보다는 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울기와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표15> 대한의원개원칙서 글자 특징

옥원중회연은 글꼴의 획 굵기가 전반적으로 균일하여 부드럽고 정돈된 인상을 준다. 반면 개원칙서의 글꼴은 획 굵기의 대비가 크게 나타나 붓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날렵한 첫돌기와 비탈진 기울기를 통해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완만한 맺음돌기와 하향하며 동그랗게 맺히는 결줄기에서는 필획의 섬세한 단아함이 느껴진다.

4.4.2. 한글 디자인

가.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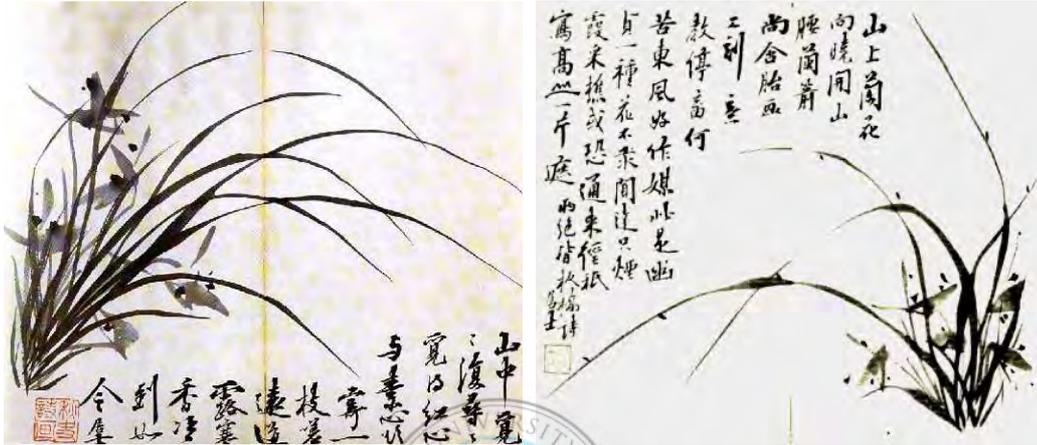
한글재민의 곧고 날렵한 세로획과 완만하고 부드러운 가로획에 내유외강(內柔外剛)을 표현했다. 비침의 속도에서 결하지세(決河之勢)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획의 시작은 날카롭게, 마무리는 부드럽게 나타내어 정문일침(頂門一鍼)의 기세를 부여했다. 개원칙서에서 볼 수 있었던 획 굵기의 대비를 한글재민 획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넣음으로써 가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그림 25> 한글재민체 1.0 디자인 컨셉

목각이나 활자가 아닌 필기체에서는 필력(筆力) · 필세(筆勢) · 필의(筆意) 등이 서체의 예술적 가치를 규명한다(장오중, 2017). 특히 필력은 필속(획을 긋는 속도)과 필압(붓의 압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이 붓글씨 서체의

인상을 좌우한다. 한글재민을 제작할 때 순종황제의 뜻을 받아적은 사자관의 필체를 문인화(文人畫)에 나타나는 특징에 빗대었다. 난초를 그릴 때 꽃, 씨방, 수술 등은 붓으로 점을 누르듯이 표현한다. 이때 붓의 압력과 속도에 따라 필세가 정의 되는데 <그림26> 추사 김정희의 소심란(素心蘭) 속 붓놀림이 칙서의 것과 유사한 기세를 보여준다(이규선, 김민, 2020).



<그림 26> 추사 김정희의 소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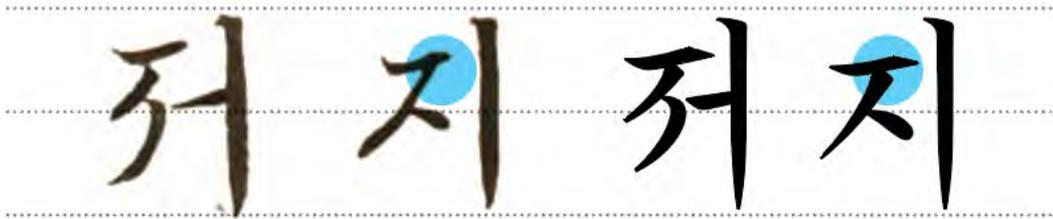
나. 디자인 원칙

***코 권 야 코 권 야**

<그림 27> 개원칙서 본연의 요소, ‘코’, ‘권’, ‘야’

‘코’, ‘권’, ‘야’의 형태는 원본의 모습을 최대한 살렸다<그림27>. 특히 ‘야’의 흘러 쓰듯 이어지는 윗결줄기와 아래결줄기는 한글재민의 식별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손글씨의 맛을 살릴 수 있는 특징들을 가져와 한글재민에 녹여냈다. 턱없이 부족했던 한글 글자의 개수 때문에 개원칙서에 나타나는 한자의 특징을 한글에 적용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원고의 ‘職(직분 직)’자에 있는 ‘立(설 립)’에서 ‘교’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글 글자 원형에 대입시켰다. 두 세로획의 각도와 가로획과 만나는 형태를 ‘교’에 대입하듯 ‘교’에도 반영하였다(이규선, 김민, 2020).

개원칙서에는 이원화(二元化)된 자소 특징들이 나타난다. 한 문서 안에서 같은 원리를 자소에 부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규칙이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이원화라고 칭한다. 자소 이원화는 손글씨만이 가질 수 있는 묘미이다.



<그림 28> 이원화된 요소 ‘저’, ‘지’

<그림28>은 개원칙서의 이원화된 자소를 한글재민에 적용시킨 모습이다. 개원칙서에는 ‘ㄸ’이 2획으로 구성된 꺾임지읒과 3획으로 구성된 갈래지읒이 공존한다. 한글재민을 제작할 때 서체의 전체적인 시각적 일관성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두 종류의 ‘ㄸ’ 형태 대신 일괄적으로 갈래지읒을 사용했다. ‘저’의 초성 우측으로 결줄기가 붙자 갈래지읒의 내리점이 좌측 하단으로 곡선을 이루는 반면 ‘지’의 경우 초성 우측으로 결줄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내리점이 우측으로 맺는 형태를 갖는다. 개원칙서 속에서는 ‘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ㄸ’과 같은 원리로 자소를 이원화하였다(이규선, 김민, 2020).



<그림 29> 이원화된 요소 ‘노’, ‘논’, ‘도’, ‘돈’, ‘로’, ‘론’

초성이 ‘ㄴ, ㄷ, ㄹ’인 세로모임 민글자와 받침글자의 경우에는 개원칙서에 나타나는 이원화 규칙을 한글재민에 가져와 일괄적으로 파생하였다.<그림29> 세로모임 민글자의 경우에는 초성의 돌기가 맺기 전에 중성의 짧은 기둥에 날카롭게 이어진다. 받침이 올 때는 초성의 끝맺음 돌기를 부드럽게 맺고 중성의 짧은 기둥이 초성의 가로획 중간에 겹치면서 위치한다.

4.5. 한자 개발

4.5.1. 개발 범위

한글재민체2.0에는 KS 표준한자를 기준으로 4,888자의 한자 글자를 제작하였고, 3.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국한자와 대법원인명용한자를 추가하여 총 8,682자의 한자 글자를 탑재했다.

4.5.2. 한글과 한자 자형 비교

한 별의 폰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작된 글자는 물론 문장부호와 특수문자까지 모두 일관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한글 폰트의 경우 한글과 어우러지는 영문 대소문자 52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두 개의 다른 문자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가 있어도, 가로획과 세로획, 자폭과 자간, 식별이 가능한 스타일 등 전반적인 형태를 맞춰 한글과 영문이 혼용되어도 이질감이 없도록 제작해야 한다.

2020년에 발간된 *Typography Now*((Shiyun Deng, Siyun He, Wanting Zeng, 2020))에서 제시한 한자의 주된 획을 총 30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하나의 획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획을 기록해놓은 것으로, 조합된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女의 첫 획은 긴 왼삐침(ノ)과 점(丶)이 결합된 획인데 이를 하나의 요소로 기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과 한자 요소의 비교를 영자팔법(永字八法)의 주요 획을 기준으로 한다. 서예의 기본이 되는 영자팔법은 해서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그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부터 학서의 필수 요목이었다(선주선, 1997).

획	점	가로획	세로획	갈고리	오른 치킴	왼삐침	짧은 왼삐침	파임	등글이음
문자	丶	一	丨	丿	㇇	ノ	㇏	㇏	〇
한글	0	0	0	X	0	0	X	X	0
한자	0	0	0	0	0	0	0	0	X

<표 16> 한글과 한자 획의 특징

영자팔법을 이루는 여덟 개의 요소 중 한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고리, 짧은 왼삐침, 그리고 파임, 세 개의 요소가 있다<표16>. 반대로 유일하게 한글에는 있지만 한자에는 없는 요소가 ‘ㅎ’과 ‘ㅇ’에 들어가는 원의 형태이다. 혼용되어도

폰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공통된 요소에는 취사선택을 하여 한글의 특징을 한 자에 부여하고, 차별되는 한자 요소에는 기존 한글과 이질감이 없도록 새로운 자소 특징을 개발해야 했다.

4.5.3. 대한의원개원칙서 한자 필체 분석

국한문혼용으로 기록된 개원칙서의 한글과 한자 글자들은 크기, 획의 굵기, 필압 등 일관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두 개의 다른 문자를 한 명의 사자관이 하나의 필체로 통일하여 시각적 이질감이 없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글재민의 한글을 개원칙서의 자소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재해석 하였듯이 한자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분석 대상으로 원본에 나타나는 한자 총 149자와 더불어 유사한 자형을 가진 국한문혼용 외교문서 3종의 한자 176자를 발췌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자소	순번	1)	2)	3)	4)
개원 칙서					
한글 재민					

<표 17> 한글재민2.0 한자에 반영된 개원칙서 글자 요소

대표적인 특징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표17> 1)'開(열 개)', '聞(들음 문)' 등 '門(문 문)'을 모양자로 가지고 있는 글자의 '尸'과 '冂' 사이의 간격이 넓게 배정되었다. 2)'心(마음 심)'을 부수 혹은 모양자로 가지고 있는 글자를 상하로 나눈다면 心이 위치한 하단보다 상단 모양자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3)'民(백성 민)'과 이를 모양자로 취하는 글자 형태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성 한자 폰트의 民은 윗 공간이 비어 있는 반면 개원칙서와 외교문서의 民은 종획이 같은 공간을 침입하는 형태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특징은 4)가로획의 5도 기울기에 있다(이규선, 김민, 2020).

도출한 네 가지의 특징을 한글재민 한자에 부여하여 식별요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재민 한자의 1)넓은 門 부수는 '열린 마음'을, 2)평체(平體) 心은 '수평적사고'를 상징한다. 3)民의 치켜올라오는 종획과 4)전반적인 가로획의 기울기는 한글재민 한자 개발 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다(이규선, 김민, 2020).

4.5.4. 한자 디자인

한글재민2.0 한자 개발은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서 출발했다. 한글 폰트에 탑재되는 한자 글꼴인 만큼, 한국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익숙한 한자 글자의 뼈대부터 잡아나갔다. 기초한자는 단순한 조형부터 복잡한 조형까지, 다양한 부수와 모양자를 가진 한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1,800자에서 4,888자까지 파생할 때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한자 모양자의 균일화부터 KS코드 완성형 한자의 개발을 통한 한 벌의 폰트가 완성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가. 모양자 균일화

한자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한자의 모양자를 균일화하는 것이었다. 한자 기성서체를 비교하면, 같은 유니코드를 가진 글자의 모양자가 서체에 따라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제시하는 ‘폰트별 한자’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 네이버 한자사전에 나타나는 한자 이체자

U+6BBA에 해당하는 ‘殺(죽일 살)’은 대법원 지정 자형에서는 ‘朮’의 형태를, 한컴바탕확장, 유니코드, 그리고 함초롬바탕에서는 ‘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함초롬바탕은 갈고리가 없고 곧은 세로획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이체자(異體字)를 제시하고 있다. 한자의 긴 역사에 따라 사용 과정에서 형태가 다르지만, 음과 뜻이 같고 어떤 환경에서도 대체될 수 있는 이체자가 발생한 것이다(Kim, E. H., 2021). 한자 유니코드는 한국, 중국의 간체자, 번체자, 일본,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언어권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진 글자들이 나타난다. 국가별 이체자가 정자(正字)와 혼용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이주현, 2015).

한양해서와 ‘Adobe 仿宋 Std R(이하 방송체)’의 한자 폰트를 참고하여 한글재민 한자의 모양자를 맞춰나갔다. 기준이 된 한양해서는 한양정보통신에서 제작된 서체로, 노출된 정보는 한정적이지만, 해체(楷體)를 본 따 한글의 궁서와 균형을 맞춘 서체로 추정된다. 1916년에 처음 개발된 방송체 활자는 송나라(960-1127) 인쇄본에 나오는 글자를 본떠 제작된 것으로, 개원칙서(1908)와 비슷한 시기인 1916년에 개발되었다(Typography Now, 2020). 방송체의 글자 기울기, 날카로운 정도,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 비율 등 개원칙서의 한자와 닮은 점이 많아, 형태적 측면에서 참고하게 되었다.

한양해서
龜全非領晴羽誤溢切邦急結溺懶娜
Adobe Fangsong
龜全非領晴羽誤溢切邦急結溺懶娜
한글재민2.0
龜全非領晴羽誤溢切邦急結溺懶娜

<표 18> 한양해서와 방송체에서 취한 한자 모양자

나. 한자 개발

균일화된 한자의 모양자에 따라 KS코드 한자 영역에 포함되는 4,888자 파생 작업을 하였다. 한글을 개발할 때는 폰트랩(Fontlab) 개발 툴을 사용한 반면, 한자 개발은 글립스(Glyphs)를 활용하였다. 폰트 개발 툴 안에서 한글 완성형 2,350자의 경우, ‘가’에서 ‘힉’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한자는 한글처럼 음(音)이 아닌 부수별로 묶여, 유니코드 4xxx부터 9xxx까지 4,620자가, 그 후에는 uniFxxx에 해당하는 268자의 중복자가 배당된다(이규선, 김민, 2021).

분류	부수의 위치	한자 예시
변	글자의 왼쪽에 위치한 부수	仙 ■
방	글자의 오른쪽에 위치한 부수	歌 ■
머리	글자의 위쪽에 놓여있는 부수	宅 ■
발	글자의 아래쪽에 놓여있는 부수	然 ■
엄호	글자의 위와 왼쪽을 싸는 부수	府 ■
받침	글자의 왼쪽과 아래쪽을 싸는 부수	近 ■
몸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부수	因 □
제부수	글자 자체가 부수로 쓰이는 부수	上 ■

<표 19> 한자 부수의 종류

자리한 위치에 따라 변, 방, 머리, 발, 받침, 엄, 몸, 제부수 8가지의 방식으로 한자의 총 214개의 부수를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부수를 개발하면 많게는 150자까지 같은 모양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자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과 마찬가지로 한자의 부수와 결합되는 자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부수의 형태를 변형하게 된다(이규선, 김민, 2021).

繡驪 濤鸞

<그림 31> 복잡한 조형의 한자 획 굵기

<Figure 31>을 보면, ‘口(입 구)’와 같이 단순한 조형에 비해 ‘囊(도울 양)’처럼 획이 많고 복잡한 자소가 붙을 경우, 같은 부수일지라도 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폭을 넓히고 줄이는 것은 스케일(scale)틀로 단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경우에 맞게 조율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한 시간이 할애되는 작업이다.

폰트 구성을 완성하는 글자들을 모두 만든 이후 오탈자 검수 작업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디자인들을 바로 잡아내고, 뭉치거나 어긋난 획들을 수정하게 되는데, 복잡한 획 구조를 가진 한자를 파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들이 한글재민체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20> 한글재민체에서 발견된 오류사항 및 수정 내용

세로획이 중간에 끊긴 ‘書’, 속공간이 오류로 인해 채워진 ‘嬉’과 ‘嬋’ 등이 대표적인 오류로 나타났다. 다행히 ‘書’의 경우에는 한글재민체2.0이 배포되기 이전에 발견되어 획을 수정할 수 있었지만, ‘嬉’과 ‘嬋’은 폰트가 배포된 이후에 인쇄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오류로, 한글재민체3.0 한자 추가자 디자인을 할 때 보완하여 오류 없이 배포하였다. 수작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오탈자 검수는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4.5.5. 한국한자 및 대법원인명용한자

가. 분류

한글재민체3.0에 포함된 한국한자 203자 중 일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원리로 한자를 제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한자의 조자 원리를 상형(象形), 회의(會意), 형성(形聲), 합음자(合音字), 네 분류로 나누었다.

상형	
<p>수</p> <p>망치 마</p>	<p>망치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이다. 독음은 고유어 '망치'의 일부를 딴 '마'이며, 본 뜻인 망치 이외에 '마' 음절이 들어가는 고유 인명, 지명의 표기에도 널리 쓰였던 글자이다. 한자에서 보기 드문 세모꼴이 등장한다.</p>
회의	
<p>畚</p> <p>논 답</p>	<p>밭 전(田)에 물 수(水)를 덧붙여서 논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독음 '답'은 비슷한 꼴의 한자인 짚에서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수전(水田)이란 단어를 쓰긴 했어도, 두 글자를 하나로 합친 畚 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한자 중 유일하게 교육용 한자에 등록되었다.</p>
<p>馮</p> <p>달릴 횡</p>	<p>정확히는 '말달릴 횡'으로, 말(馬)이 횡 달린다는 뜻을 가졌다. 성씨 중 '횡'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p>
<p>颶</p> <p>문바람 팽</p>	<p>문이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뜻한다.</p>
형성	
<p>櫛</p> <p>장롱 장</p>	<p>뜻을 나타내는 木(나무 목)과 음을 나타내는 藏(감출 장)이 합쳐진 형성자이다. 예) 벽장(壁櫛) /약장(藥櫛) /의장(衣櫛) /책장(冊櫛) /진열장(陳列櫛)</p>
<p>柱</p> <p>장승 생, 찌 생</p>	<p>뜻을 나타내는 木(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生(생)이 합쳐진 형성자이다. 예) 장생(長柱) /추생(抽柱) /석장생(石長柱)</p>
<p>舳</p>	<p>'舳'은 '거룻배'를 표기한 '居刀'에 표의 편방인 '舟'가 부가되어 형성된 글자이다.(남풍현, 1989, p.101; 김중훈, 2014, p.272) 예) 거도선(居刀船)</p>

거룻배 거	
岱 집터 대	의부(義符)인 土와 성부(聲符)인 代를 결합하여 만든 형성자이다. 代를 집터의 뜻으로 가차(假借)하여 쓰다가 土를 더하여 그 뜻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었다. 예) 낙성대(落星岱)
餠 떡 편	뜻을 나타내는 먹을 식(食)과 음을 나타내는 扁(작을 편)으로 구성된 한자이다. 송편과 절편의 음역자로 쓰인다. 예) 송편(松餠) /잡과편(雜果餠)
합음자	
呑 대구 화	물고기 이름인 대구의 한자 표기 대(大)와 구(口)를 한 글자로 만든 합체자이다. 독음 '화'의 출전은 미상이나, 위아래가 뒤집힌 글자인 못(큰소리칠 화) 자에서 독음이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喫 일꾼 부	우리말의 '일꾼'이라는 뜻을 표기하기 위하여, 功과 夫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 功은 '일'의 뜻, 夫(夫)는 '사나이'의 뜻이 있으므로, 이 두 자를 결합하여 '일꾼'이라는 뜻을 나타내었다.

<표 21> 한국한자의 조자원리 4종류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의 문법구조와 음운체계, 특히 종성 표기를 적용한 ‘切音字’ 형식인 합음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자원리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한국한자의 특징이다. 한자와 한글 자모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국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만들어진 글자로서, 초성·중성은 한자로 나타내고, 종성은 한글 자모를 사용하여 조자하였다.

종성	사용한자	예시		
ㄱ	ㄱ	특 사람이름 거 ㅌ+ㄱ	투 음역자 독 투+ㄱ	투 음역자 억 於+ㄱ

ㄴ	ㄷ	문					
	숨을 은	음역자 문 豆+ㄷ					
ㄹ	乙	峇	鬲	𪛗	𪛘	𪛙	𪛚
	새 을	음역자 갈 加+乙	걸 걸 巨+乙	이름 돌 石+乙	땅이름 얼 於+乙	술 술 所+乙	음역자 울 五+乙
ㄹ	口	耆					
	입 구	음역자 늬 老+口					
ㅂ	巴	髡					
	꼬리 파	음역자 곱 高+巴					
ㅅ	叱	𪛛	𪛜	𪛝	𪛞	𪛟	𪛠
	꾸짖을 질	땅이름 것 去+叱	음역자 갓 介+叱	음역자 뜻 道+叱	음역자 숫 小+叱	음역자 늬 老+叱	땅이름 팻 巴+叱
ㅇ	同	𪛡					
	한가지 동	음역자 똥 叱+同					

<표 22> 한글의 조형을 반영한 한글재민체의 한국한자

<표22>를 보면 ‘ㄱ’, ‘ㄴ’, ‘ㄹ’, ‘ㄹ’ 중성을 한글 자형과 유사한 한자를 가져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글의 ‘ㅇ’ 중성과 한자를 결합한 유형의 한국한자도 눈에 띈다. 한글에는 ‘ㅇ’이, 라틴 알파벳에는 ‘o’라는 원형의 문자가 있지만 중국 한자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형이다.

		
음역자 강 加+ㅇ	음역자 등 斗+ㅇ	음역자 영 於+ㅇ

<표 23> 방송체 한자의 ‘ㅇ’꼴

추가된 한국한자들은 모두 한글재민2.0 한자의 형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수(망치 마)’와 한글 <표23>의 글자들과 같이 ‘ㅇ’이 결합된 한국한자의 경우에는 세모꼴과 원의 형태를 기존 한자 자형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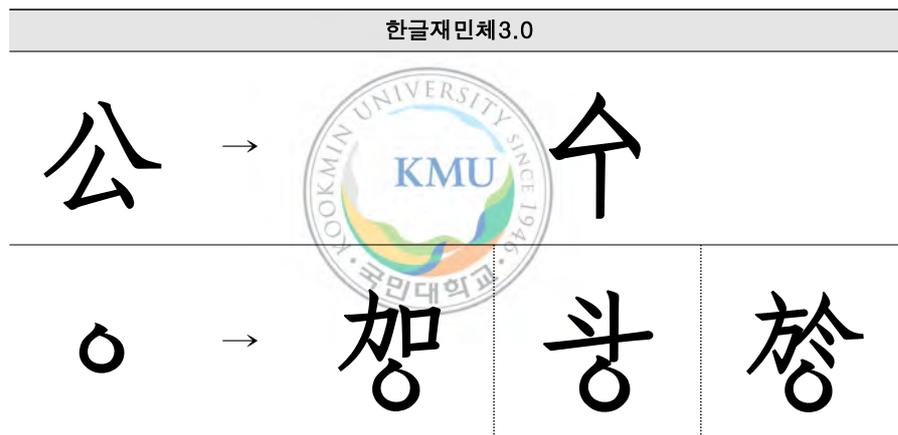
나. 글자의 형태

	(1)방송체	(2)함초롬바탕체	(3)한양해서체
망치 마			
공평할 공			
음역자 등			
한글 ‘ㅇ’	—	○	○

<표 24> 한국한자의 세모꼴과 원의 형태

<표24>는 방송체, 함초롬바탕체, 한양해서체의 세모꼴과 원의 표현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한자 자형 중 세모꼴에 가장 가까운 ‘厶’ 자형과 ‘斗’의 원형을 가진 한글 ‘ㅇ’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방송체는 세로 기둥에만 한자의 자형을 부여한 것을 볼 수 있다. 세모꼴은 한자 획의 특징이 배제된 채 기하학적인 모양

자를 보인다. (2)함초롬바탕체의 경우는 방송체와 비슷하게 세로 기둥의 맺음에 한자 특징을 대입했다. 추가적으로 세모꼴의 상단에 상투를 걸쳐 바탕체의 결을 맞추었다. (3)한양해서체는 방송체와 함초롬바탕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ㄴ’자의 첫돌기, 꺾임이 ‘수’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점(點)을 길게 뻗어 세모꼴을 완성시켰다. 세로 기둥에도 역시 한양해서체의 자형이 담겨있다. ‘왕’의 자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글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방송체는 ‘ㅇ’ 꼴이 표에서 제외되었다. 함초롬바탕체의 ‘ㅇ’ 꼴은 두께 대비가 있지만 한자의 원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양해서체의 한글 ‘ㅇ’ 꼴은 상투가 없지만 한자의 원에는 상투가 추가되어 있다. 이는 한자에는 없는 모양자를 추가하면서 이질감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체 3종의 원 모양은 공통적으로 넓적한 타원형의 모습이다.



<표 25> 한글재민체3.0 반영된 한국한자의 세모꼴과 원 형태

한글재민3.0의 세모꼴과 원의 형태는 <표25>와 같이 표현했다. 세모꼴은 ‘ㄴ’ 자형을 그대로 적용시켰으며 한글 ‘ㅇ’의 형태 또한 음역자에 반영했다. 방송체, 함초롬바탕체, 한양해서체에 등장하는 타원형의 원 대신 정(正) 원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한국한자의 식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6. 라틴 알파벳 개발

한 벌의 한글 폰트에는 대소문자 라틴 알파벳(이하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폰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시각적으로 서로 동일한 체계 속에서 구조적 동질성을 갖는다. 획의 굵기는 물론 형태의 시각

적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김성빈, 2006). 국내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알파벳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문자체계는 근본적 형태나 비례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형적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문자의 역사적 배경, 문자의 기본 구조, 그리고 문자의 변천에 영향을 끼친 도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이 혼용되었을 때의 시각적 이질감을 덜기 위해서는 두 문자체계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뼈대에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글재민체1.0을 제작할 당시에 함께 개발된 알파벳은 전형적인 세리프 형태에 한글 자소의 특징을 조금 가미하고 획의 두께를 맞춰 완성했다. 한글의 특징이 반영된 한자를 한글재민2.0에 탑재하면서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세 개의 문자 혼용 실험을 시행한 결과 한글과 한자에 비해 영문과 특수문자의 특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새롭게 연구하고 보완하였다.

4.6.1. 한글재민체1.0 라틴 알파벳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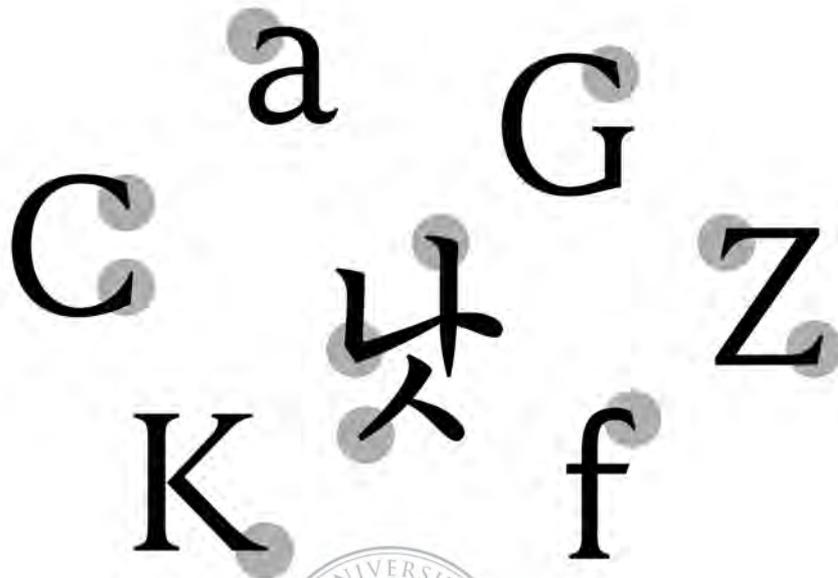


ABCDEFGHIJKLMNOP
 OPQRSTUVWXYZ
 abcdefghijklmn
 opqrstuvwxyz

<그림 32> 한글재민체1.0에 탑재된 대소문자 라틴 알파벳

한글재민체1.0은 한글 완성형 2,350자와 라틴 알파벳 94자 두 문자 영역이 탑재된 폰트로 2020년 한글날에 배포되었다. 당시에 한글재민의 한글 글꼴을 바탕 계열의 폰트로 정의했고 그에 맞춰 전형적인 형태의 세리프 라틴 알파벳에 최소한

의 특징을 부여해서 완성시켰다. 차년인 2021년에 KS한자 4,888자가 추가되어 배포된 한글재민2.0의 한글, 한자, 영문, 문장부호, 그리고 특수문자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부족한 라틴 알파벳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림 33> 한글에서 취한 한글재민1.0의 조형적 특징

한글재민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붓을 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날렵하고 강건한 획의 시작과 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세리프 알파벳에 이러한 한글의 날카로운 면모를 적용하고 획의 굵기를 맞추었다. 붓의 느낌이 살아있는 한글 글자와는 달리 알파벳의 자형은 날카롭다는 특징 외에는 ‘한글재민체’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

대한 Daehan 大韓 의원 Hospital 醫院 개원 Inauguration 開院 칙서 Edict 勅書

<그림 34> 한글재민체2.0 국한영문 혼용 사례

한글, 한자, 영문이 혼용되었을 때의 이질감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세리프체의 특성상 가로획과 세로획이 일정한 굵기를 이루고 있지 않아 그에 비해 균일한 획의 굵기를 가진 한글재민체의 한글과 한자보다 알파벳이 빈약한 인상을 남겼다.

<그림 34>

한글재민3.0 라틴 알파벳 디자인의 기반이 될 기본 구조를 잡기 위해 영문 폰트 분류법을 연구하여 본 폰트의 한글과 한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체 스타일을 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

4.6.2. 서체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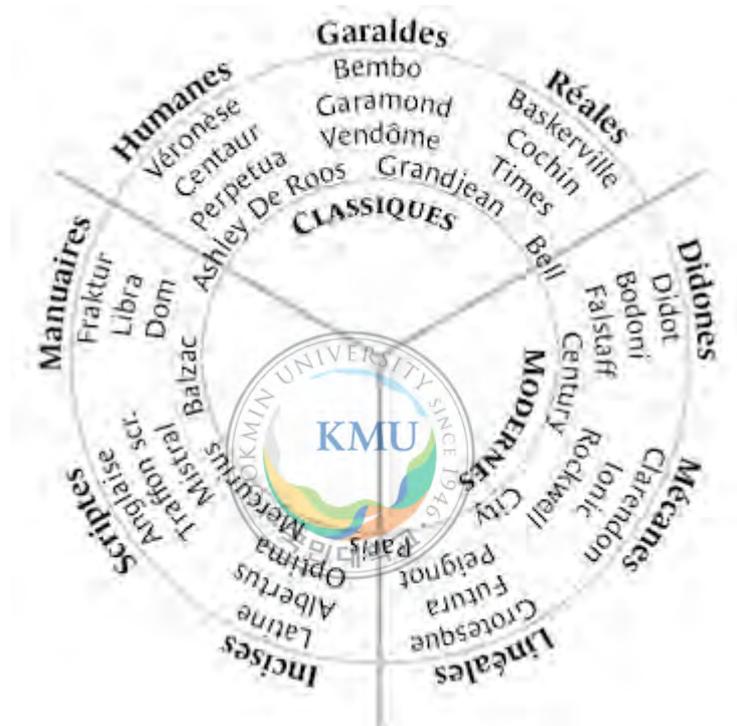
<그림 35> 한글재민체3.0 한글과 한자 획 특징

한글재민체는 획의 돌기와 맺음 형태를 놓고 보았을 때 바탕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사자관이 붓으로 필사한 한글과 한자 글꼴의 형태를 재해석한 폰트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손글씨의 성격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ㄱ’의 흘려 이어지는 결줄기와 ‘노’의 자음과 모음이 한 획으로 표현되는 형태, 그리고 한자 ‘立’의 왼삐침과 ‘之’의 파임에서 필기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노’, ‘리’, 그리고 ‘之’의 날카롭게 꺾인 모양 또한 한글재민체의 식별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형태 또한 라틴 알파벳에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바탕체와 필기체의 특징이 공존하는 한글재민3.0의 라틴 알파벳도 이중적인 서체 스타일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했다.

가. 복스-ATypI 글자체 분류법

프랑스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막시밀리안 복스(Maximilien Vox, 1894-1974)는 서체 분류와 묘사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등의 혼돈과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서체 분류법을 고안하였다(김중성, 2009). 이 분류법은 1961년 국제타이포그래피 연맹(ATypI)에 의해 표준화된 분류법으로 채택되어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 36> 복스-AtypI 라틴 알파벳 분류법

복스-AtypI의 분류법은 알파벳의 글자체를 휴머니스트(Humanes-Humanist), 개럴드(Garaldes-Garald), 트랜지셔널(Reales-Transitional), 디돈(Didones-Didone), 슬랩 세리프(Mecanes-Slab-serif), 리니얼(Lineals-Lineal), 글리픽(Incises-Glyphic), 스크립트(Scriptes-Script), 그래픽(Manuaires-Graphic), 블랙레터(Blackletter), 총 10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그림36>

한글재민체의 한글과 한자는 바탕체와 필기체의 성격을 결합한 서체 스타일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로마 알파벳에 적용할 트랜지셔널과 스크립트 서체 스타일에 주목하였다. 한글재민체의 식별요소인 날카로운 꺾임 또한 알파벳에 대입할 계획으로 글리픽 유형의 글자체 또한 살펴보았다.

나. 스크립트 서체 유형

스크립트 서체는 필기체(calligraphy)의 자발적인 리듬을 모방한다. 펜글씨만의 예리하면서도 상이한 두께의 획 굵기가 도드라지는 글자체 유형이다. 스크립트 유형의 글자체는 자연스러운 손글씨를 표현하기 때문에 글자간 이어지는 요소들이 존재하며, 스왑시(swash)와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스크립트 글자체는 디지털 환경으로 이전되면서 현대적인 표현 방식으로 인해 대폭 확장되었다.

(1) Snell Roundhand

The Quick Brown Fox

(2) Mistral

The Quick Brown Fox Jumps

(3) Frauen

The Quick Brown Fox Jumps

(4) Bli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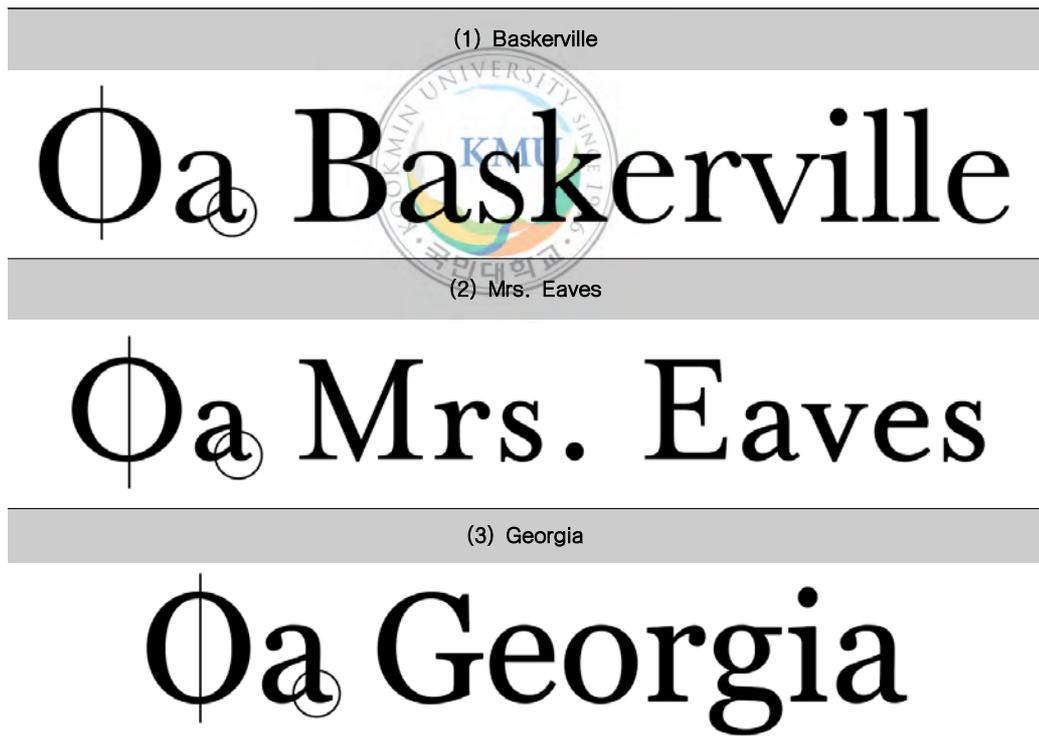
The Quick Brown Fox

<표 26> 스크립트 유형의 폰트

<표26>에서 다양한 유형의 라틴 스크립트 글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시한 스크립트 서체 4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장식적인 곡선 요소와 단어 속 글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시각 착시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스크립트 유형의 서체들이지만 작가의 개성이 각각 드러나는 것은 글자 기울기, 장식요소의 모양과 정도, 획의 굵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스넬 라운드핸드(Snell Roundhand)는 고전적인 스크립트(formal script) 스타일의 폰트로, 글자들이 중심축으로부터 우측 기운 각도로 배치되어 있다. (4)블리츠(Blitz)도 마찬가지로 글자들이 기운 이탤릭의 형태를 띤다. (2)미스트랄(Mistral)은 폰트 4종 중 가장 자유분방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소문자의 x-height 높낮이가 다양하며, 기울기도 글자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3)프라언(Frauen)은 고전적인 스크립트 스타일의 특징인 기운 각도가 배제되고, 정방향의 글자 배치를 특징으로 한다. 획의 굵기 차이에서도 서체 4종은 구분이 된다. 스넬 라운드핸드와 프라언은 굵고 얇은 획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미스트랄은 최소한의 차이를 보이고, 블리츠는 모노라인(mono-line)으로 획 굵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다. 트랜지셔널 서체 유형



<표 27> 트랜지셔널 유형의 폰트

트랜지셔널 글자체는 1694년 프랑스 루이 14세를 위해 왕의 인쇄소에서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왕의 로만(Romain du Roi)’을 원형으로 한다. 모듈 속에 글자를 기하학적으로 제도하여 그런 정교하고 수학적 형태의 글자로 발달되었다. 트랜

지셔널 유형의 글자들은 획의 수직 수평 질서가 분명하며 세리프가 정교하고 예리하다. 'O'와 'Q'와 같이 둥근 글자의 축은 수직에 가까운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1)베스커빌(Baskerville), (2)미세스 이브스(Mrs. Eaves), (3)조지아(Georgia)를 들 수 있다.

라. 글리픽 서체 유형

글리픽 유형의 글자체는 돌에 새겨진 글자 형태를 모방한 양식이다. 가장 전형적인 글리픽류의 폰트들은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표27>의 (1)트라얀(Trajan)은 1989년 캐롤 트왈블리(Carol Twombly)가 로마시대의 트라야누스 황제 비석에 있는 로마자 원형을 살려 제작한 폰트이다. 고대 로마시절 쓰였던 그대로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트라얀을 포함한 글리픽 유형의 글자체는 대문자의 폭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다. 획의 끝부분에서 보여지는 뭉툭하거나 뾰족한 모양은 글자를 돌에 새길 때 사용되는 도구의 영향에서 온 것이다. 글리픽은 트라얀의 'P'나 (2)알베르투스(Albertus)의 'p'처럼 아예 열거나 날렵하게 맺히는 형태를 이루는 것 또한 특징 요소로 한다. 세리프체와는 다르게 알베르투스 글자의 가로획과 세로획의 차이는 최소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시된 서체 2종의 'O'에 나타나는 축의 기울기도 글리픽 글자체의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 Trajan



(2) Albertus



<표 28> 글리픽 유형의 폰트



4.6.3. 라틴 알파벳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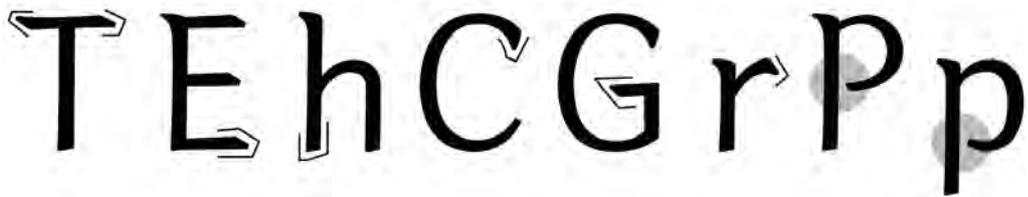
가. 디자인 원칙

한글재민체의 한글과 한자의 구조적 특징들은 바탕체와 필기체를 기반으로 한다. 한글 바탕체와 영문 트랜지셔널(이하 세리프) 유형이, 그리고 한글 필기체와 영문 스크립트 유형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한글재민 라틴 알파벳은 세리프와 스크립트가 결합된 기본 뼈대를 잡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한글재민 한글과 한자의 날카로운 획 처리들은 유사한 특징들을 가진 글리픽 글자체의 유형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1) 세리프 유형



2) 글리픽 유형



3) 스크립트 유형



<표 29> 글꼴 유형에 따른 한글재민3.0 라틴 알파벳의 형태

1) 세리프 유형

한글재민3.0의 라틴 알파벳에 부여한 세리프 글자체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트랜지셔널 글자체의 수직형 축을 ‘Q’에 대입했다. 소문자 ‘a’와 ‘u’의 꼬리와 ‘c’의 방울처럼 맺힌 첫돌기는 전형적인 세리프의 특징을 보인다. ‘A’와 ‘M’에는 우측 맺음에만 세리프를 부여하고 좌측 기둥은 뚱뚱하게 처리하여 세리프와 글리픽 글자체의 중간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재민2.0 개발 당시 수직에 가까운 세로획의 첫돌기를 복잡한 구조의 한자에 대입했을 때 가독성에 문제가 생겨 단순화 시켰었다. 라틴 알파벳 세리프는 <표29>과 같이 한글과 한자의 중간 형태로 디자인하여 세 개의 문자체계가 모두 혼용되어도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ㄱ	一	P

<표 30> 한글재민체3.0의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세리프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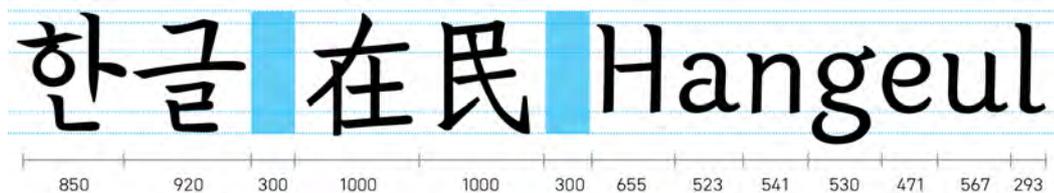
2) 글리픽 유형

한글재민체의 날렵한 획 구조는 글리픽 유형의 라틴 알파벳 형태를 참고하여 표현하였다. 한글의 세로획과 어울릴 수 있게 알파벳의 가로획과 세로획 맺음을 날카로운 각이 지도록 제작했다. 열린 대소문자 ‘p’의 형태와 전체적으로 균일한 획의 두께 또한 글리픽 유형의 글자체에서 따왔다.

3) 스크립트 유형

스크립트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글자간의 이음을 연상시키는 요소와 장식적인 스와시(swash)의 표현 기법이다. 한글재민체의 한글에서 개원칙서의 붓으로 쓴 필획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식별 요소들을 대소문자 ‘V’, ‘W’, 대문자 ‘Z’에 부여했다. 소문자 ‘y’와 ‘j’의 디센더(descender) 맺음에 스크립트 유형의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디센더의 영역까지 내려오는 소문자 ‘f’ 또한 라틴 필기체에 기반한 스크립트 특징요소에서 가져와 대입시켰다.

나. 글줄 배열



<그림 37> 한글재민체3.0 글줄 배열

한글재민체3.0은 한글과 한자, 그리고 라틴 알파벳까지 총 3개의 문자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자의 구조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혼용되었을 때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글줄 배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4.7. 아라비아 숫자 및 특수문자 개발

한 별의 시각적으로 통일된 폰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자 뿐 아니라 특수 문자까지 결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키보드로 타자 칠 수 있는 라틴 알파벳 영역의 94자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만들게 된다.

특수문자 493자 중 1)아라비아 숫자, 2)기본 문장기호, 그리고 3)합자를 중심으로 한글재민3.0의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특징들이 반영된 모습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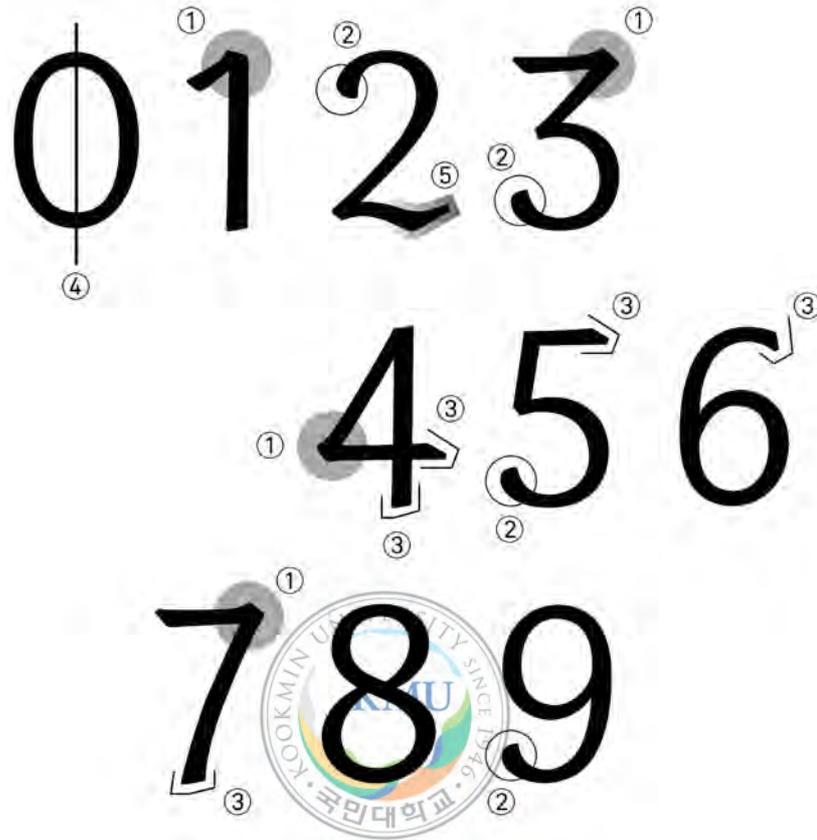
4.7.1. 개발 범위

라틴 알파벳	전각문자	로마자	괘선	원문자	괄호문자	합자	기타 문자
94	91	20	68	79	70	5	66

총 493자

<표 31> 한글재민체3.0 특수문자 영역

4.7.2. 아라비아 숫자



- ① 꺾임 ② 돌기 ③ 세로획 맺음 ④ 축 ⑤ 꼬리

<그림 38> 아라비아 숫자의 조형적 특징

① 꺾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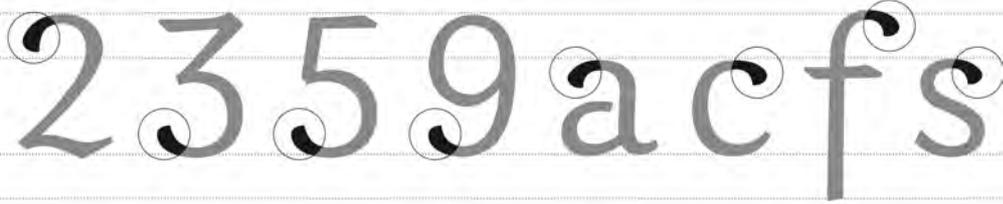
아라비아 숫자 1, 4, 7의 꺾임

한글 '노', 한자 '口', 알파벳 'z'의 꺾임 요소를 숫자 1, 4, 7에 적용했다.

<표32>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꺾임

② 돌기

아라비아 숫자 2, 3, 5, 9의 돌기



알파벳 'a', 'c', 'f', 's'의 돌기를 숫자 2, 3, 5, 9에 적용했다.

<표 32>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돌기

③ 세로획 맺음

아라비아 숫자 4, 7의 세로획 맺음, 5, 6의 부리(b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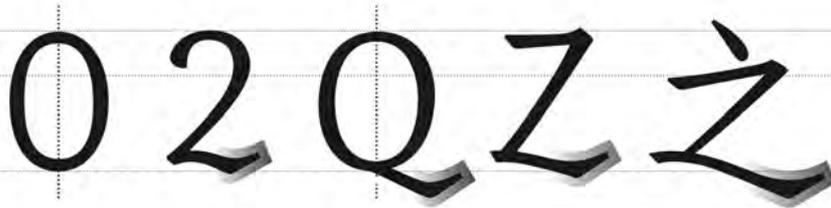


알파벳의 세로획을 세로획이 있는 숫자에 적용했다.
숫자 5, 6의 부리에 알파벳의 가로획을 적용했다.

<표 33>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세로획 맺음

④ 축 / ⑤ 꼬리

숫자 0의 축과 2의 꼬리



알파벳 'Q'의 수직축을 숫자 0에, 대문자 'Z'와 한자 '之'의 꼬리를 숫자 2에 적용했다.

<표 34>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축과 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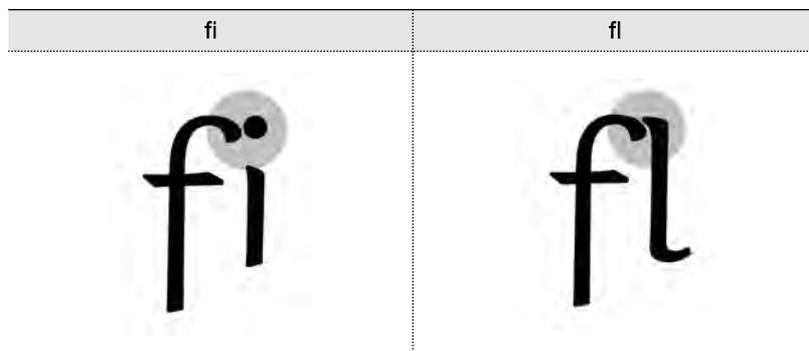
4.7.3. 특수문자

한글재민체 특수문자 영역 중에 특징이 도드라진 글자들은 합자이다. 합자(ligature)는 인쇄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손으로 쓰는 필기에서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 모양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합자의 전통적인 필사에서 빠르게 문자를 적는 효율성에서 시작되었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심미적인, 또는 가독성의 이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AE → *Æ* *ij* → *ij*
ae → *æ* *st* → *st*
OE → *Œ* *ft* → *ft*
oe → *œ* *et* → *&*
ff → *ff* *fs* → *β*
fi → *fi* *ffi* → *f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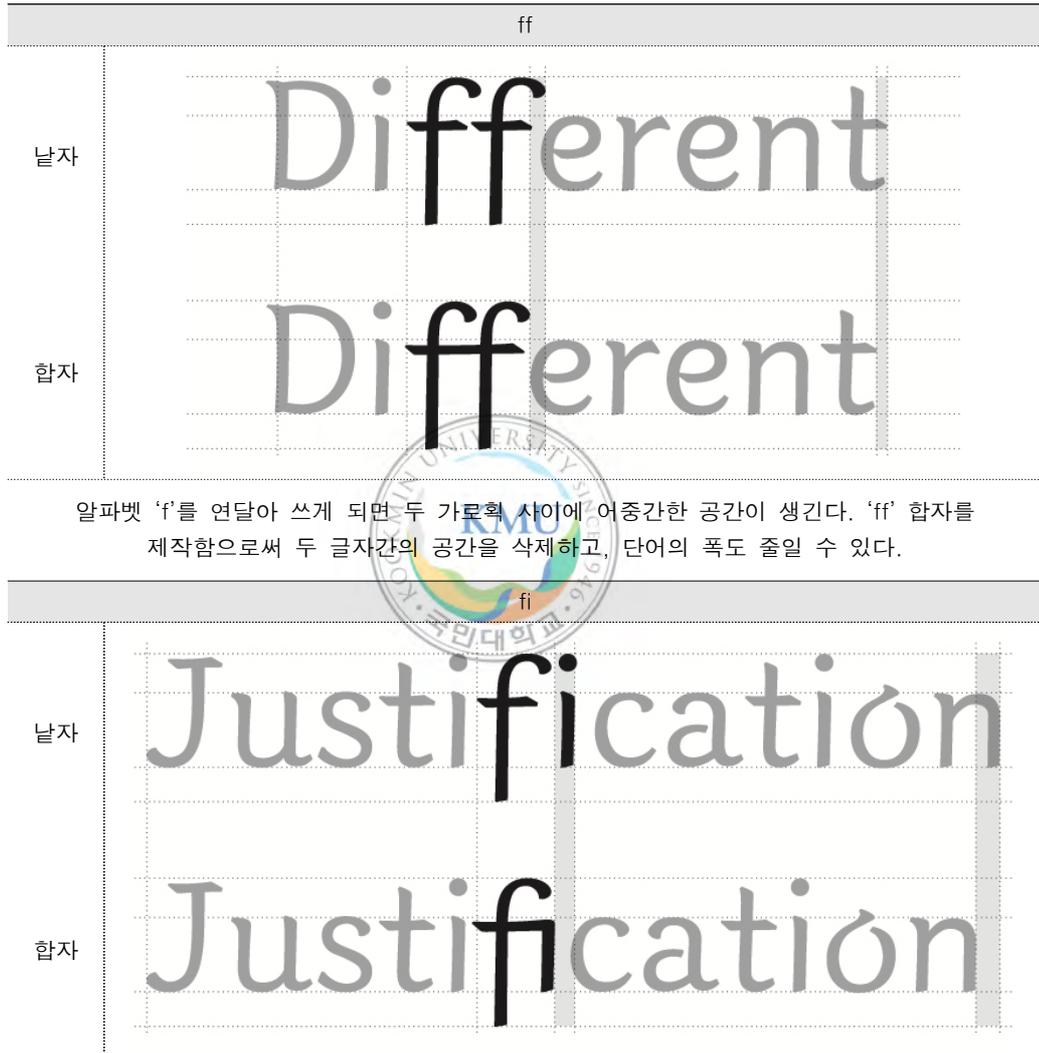
<그림 39> 라틴 알파벳의 합자

한글재민3.0 라틴 알파벳의 일부 형태는 스크립트 유형의 글자체에서 가져왔다. 디센더까지 내려간 것이 특징이었던 'f'는 이러한 유형을 반영한 것이었고, 필기체의 느낌을 더하기 위해 'f' 꼴을 기반으로 한 합자 다섯 글자, 'ff', 'fi', 'fl', 'ffi', 'ffi'를 추가하였다.



<표 35> 한글재민체3.0 라틴 알파벳 합자 부재의 문제점

스크립트 글자체의 형태적 특징을 빌려온 ‘f’의 돌기는 우측으로 돌출된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f’ 이후에 등장하는 글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f’ 뒤로 종종 등장하는 ‘i’와 ‘l’의 형태적 특징 때문에 ‘f’의 돌기와 부딪힐 우려가 있는 것이다. ‘ff’, ‘fi’, ‘fl’, ‘ffi’, ‘ffl’ 합자를 개발함으로써 뭉치는 현상을 해소 시킬 수 있었으며, 문장의 가독성 또한 올릴 수 있었다.



ffi

날자

Affirmative

합자

Affirmative

알파벳 'f' 뒤로 'i'가 올 때 'f'의 돌기와 'i'의 동그라미(tittle)이 맞닿는 착시를 일으켜 가독성을 해친다. 'fi'와 'ffi' 합자를 제작할 때에는 'f'의 돌기가 'i'의 동그라미 역할까지 하도록 했다.

fi

날자

Conflicted

합자

Conflicted

ffi

날자

Shuffle

합자

Shuffle

알파벳 'f'와 'i'의 경우에도 합자 'fi'와 'ffi'와 같이 'f'와 'i'사이에 여중간한 공간이 생겨 가독성을 해치게 된다. 'f'와 'i'의 상단 부분을 연결하여 'fi', 'ffi' 합자를 제작했다.

<표 36> 한글재민체3.0 라틴 알파벳 합자, 'ff', 'fi', 'ffi', 'fi', 'ffi'

V. 보급 및 배포



V. 보급 및 배포

5.1. 전시

한글재민체는 1.0에서 3.0까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대중에게 사자관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폰트를 알릴 수 있도록,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재해석 폰트의 기반이 된 대한의원개원칙서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최초로 한글재민체를 공개함으로써 의학사적, 상징적 뜻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전시 기간	전시 제목
2020년 10월 8일~ 2020년 11월 1일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
2021년 11월 2일~ 2020년 12월 14일	함께 쓰기, 한글과 한자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2022년 5월 25일~ 2022년 6월 30일	1908-2022 -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3.0으로

<표 37> 한글재민체 특별전 3회 일정 및 제목



<그림 40> 한글재민체 전시 도록 3종

박재갑 명예교수와 국민대학교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가 협업하여 3회의 전시를 함께 기획하면서 진행했다. 전시 기획의 일환으로 특별전을 진행할 때마다 전시의 내용과 작품을 담은 도록을 디자인하고 제작했다.<그림40> 각 특별전에서 선보인 서예작품들은 모두 박재갑 명예교수가 한글재민체로 출력된 모본(募本)을 바탕으로 임모(臨募)한 것이었다. 한글재민체의 단초가 된 개원칙서 레플리카와 나란히 박재갑 명예교수가 직접 필사한 한글 번역본의 개원칙서를 전시함으로써 사자관체가 재해석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의원개원칙서

짐이생각하건대국운의성쇠는국민의건강과질
 병에연유함이많다우리나라의현재상황을살피
 건대위생사상이아직유치하고의료기관이갖추
 어져있지않아짐이태황폐케하의성스러운뜻을
 이어받아담당관리들로서금우방에서장점을
 취해의술의보급과진흥을도모하고자대한의원
 을창설하기로하였다담당관리들이업무를충실
 히행하여이케공사가준공되고개원식을거행해
 본원의업무를시작하여그효과와의서광이침차원
 근에미쳐온국민이그혜택을입게됨은짐이마음
 속으로만족하는바이다그러나그임무는막중하
 고그길은마적멀다짐은정부당국의협력과본원
 의료진의분발에의지하여이를대성하게하려하
 니그대를신뢰는짐의뜻을받들지어다
 서기임삼구박관년시월이십사일
 서기이십년오월이십오일무간박재갑쓰다

<그림 41> 박재갑 명예교수가 임모한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번역본

전시 작품을 구상하면서 박재갑 명예교수는 의학과 관련된 각종 고문서 자료를 발굴하였고, 이 역시 한글재민체 모본을 바탕으로 붓글씨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의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지식영 선생이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한문 편지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를 한글재민체로 임모한 서예작품,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영조대왕 시절의 <역질 관련 윤음>과 정조대왕 시절의 <무오년독감>을 재민체로 쓴 작품 등 전시를 통해 역사 속에 묻혀있던 옛 문헌의 뜻깊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遺典也藥料則多陳根腐草也傷中順劑微疴或效
 妄用峻藥壽命橫促比諸太西解剖明確之方格致
 窮通之法撮精取露之劑工拙精麤不啻天淵可愧
 也已凡諸人民之疾病已患少濟而尤所急者大醫
 軍醫之需用也以愚意之亟設醫學於都下雇聘
 日本名醫之兼通西語者以爲教師選我日英語學
 生中稍優漢文之聰俊幾人以爲學徒使之勤篤講
 習待其卒業披其尤勝大醫軍醫之材品俾有餘裕
 而派送各道設校教授徒一再傳薪則青囊國手遍于
 闡境上下軍民共躋壽域始之源泉之功而終之滄
 海之德也伏願閣下洞察而決行焉誠如是也美無
 倫矣教師則 政府自富安之學徒則教師自富國
 之復何贅疣之有哉但恐風土寒溫之有異腸腑滋
 養之不同也或有適彼不適我之端然則宜於其教
 師學徒之間不得不有一箇參酌贊成之人然後可
 得以全提圓就也此等人苟非會通中西醫學者不
 可也浩浩芸芸必有其人而惟所虞者珠淡灰中真
 品易隱蠟光板上虛譽或顯也錫永固也無知自幼
 性備好醫土醫學略有涉蹟太西醫書亦頗廣搜
 遠求閱覽雅矣對症投劑不敢曰能至於內外科目
 之彼此利害方藥品劑之優劣取捨非無如干權衡
 於其中也若使實地運措專指此責則溫故知新必
 有幾今增益而緣於先知飾之後進亦不敢萬萬退
 讓也世人公議未知如何而不避自薦之嫌願仰云
 云於 高明之下誕妄慚惶有汗如雨然實出公濟
 之衷而不私謀之表也表雖如私衷自是公古人
 賢智亦多不問何必苟拘小節不奮於世教之利澤
 者乎竊賞論之醫家望聞問切之法即是大學修齊
 治平之道也望者如修聞者如齊問者如治切者如
 平次第節目其致同也蘊而養之道醫一身廣而濟
 之法藥四海其身有病從安得修修身不得齊家治
 國平天下從何而達乎故曰天下之學莫如醫重也
 統希 照亮
 光武二年十一月七日
 正三品池錫永
 學部大臣李道宰 閣下
 西紀二千二十一年五月在民朴在甲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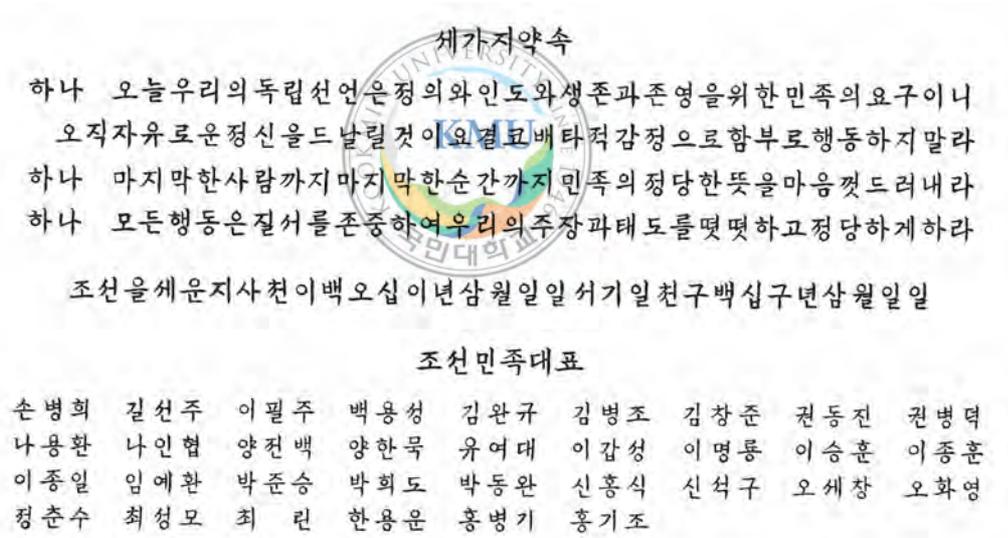
<그림 42> 박재갑 명예교수가 임모한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 일부





<그림 43> 3:1 독립선언서 원문

2021년 특별전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의 작품으로 박재갑 명예교수는 삼일독립선언서 원문(각주)과 번역본을 각각 한글재민체로 쓴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의 바탕이 된 삼일독립선언서 원문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제공해준 것으로, 윤태 박종화(각주)의 친필이 첨부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서기이천이십일년팔월재민박재갑쓰다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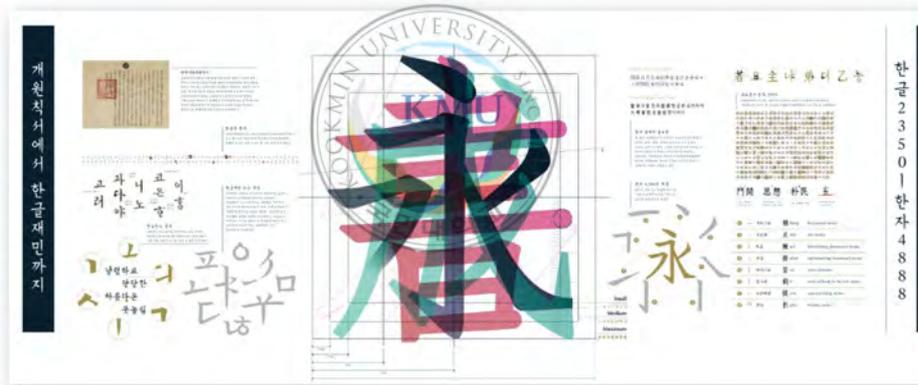
<그림 44> 박재갑 명예교수가 임모한 삼일독립선언서 일부

2022년 특별전 <1908~2022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체3.0으로>에서는 박재갑 명예교수가 전각기법으로 제작한 '천물무간天物無間'과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작품이 돋보였다. 한글재민체의 한글과 한자를 활용하여 전각으로 디자인한 작품이다.



<그림 45> 한글재민체로 새겨진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전각 작품

박재갑 명예교수의 다양한 작품과 함께 한글재민체의 개발 배경과 과정을 담은 작품 또한 디자인하여 전시했다.



<그림 46> 2021년 한글재민2.0 특별전 작품



<그림 47> 2022년 한글재민3.0 특별전 작품

5.2. 배포



<그림 48>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무료로 배포된 한글재민체

특별전 개막과 동시에 한글재민체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우리 문자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글재민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유마당’에서 OFL (Open Font License) 형식으로 배포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권재민에서 비롯된 한글재민체는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순종 황제가 대한의원을 개원한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었고 개원칙서는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한글재민의 상용화는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둔 사례이다(이규선, 김민, 2020).



<그림 49> 공유마당에서 ‘인기순위 TOP 1’을 기록한 한글재민체 1.0

5.3. 활용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 한글재민체의 활용사례들을 TV, 인터넷 방송, 홍보 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사용된 매체도 다양했지만 폰트를 내려받은 이후에 사용자가 한글재민체를 활용한 방법 또한 가지각색으로 나타났다.



<그림 50> 한글재민체가 자막으로 활용된 TV조선의 '화요일 밤이 좋아'

2022년 2월 15일에 TV조선에서 방영된 '화요일 밤이 좋아'에 자막으로 한글재민체가 등장했다.<그림50> 수시로 움직이는 영상 위에서도 글자들이 명확하게 읽힐 수 있도록 아웃라인과 글로우(glow), 미세한 그림자, 그라디언트 (gradient) 등 다양한 효과를 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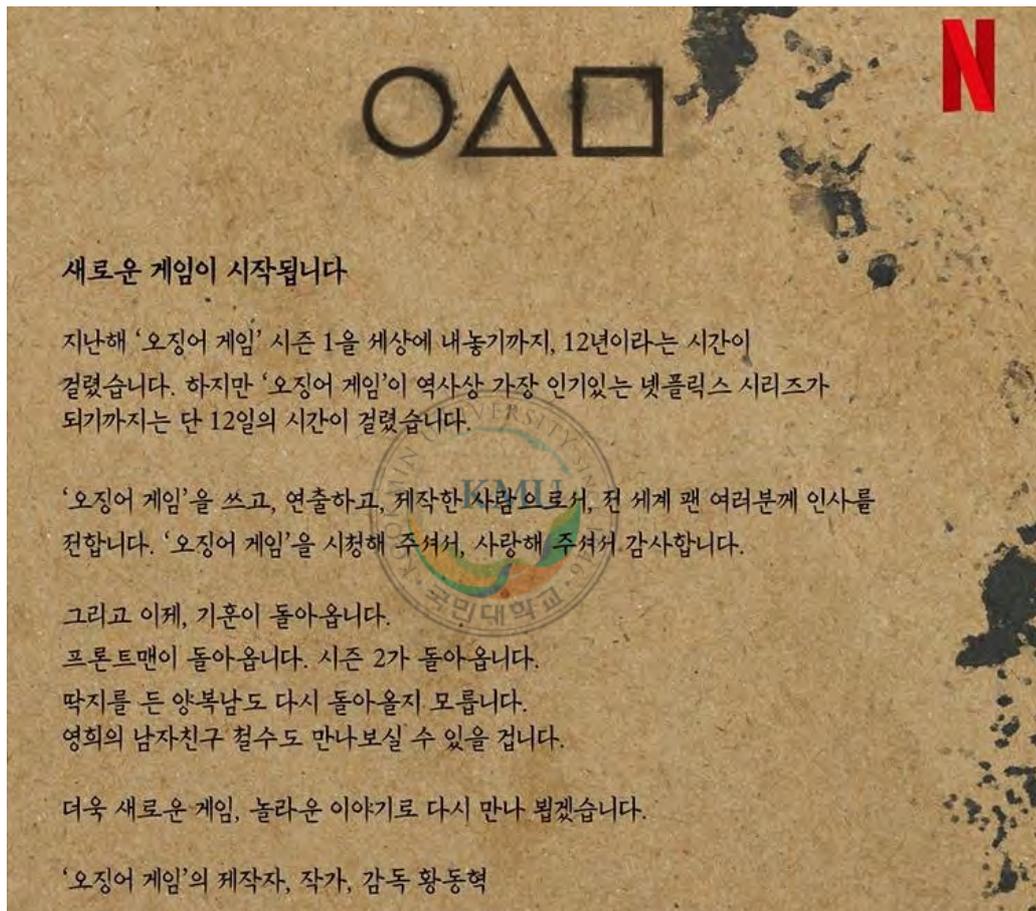
<그림 51>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상회’ 홍보 인쇄물에 인쇄된 한글재민체

종로구 우정국로에 위치한 카페의 홍보 인쇄물에 사용된 한글재민체의 활용 방법은 <그림50>의 활용 방법과는 또 다르다.<그림51>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행간과 자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것을 볼 수 있다. 글자들이 겹치면서 흥미로운 디자인 레이아웃을 이룬다.



<그림 52> 넷플릭스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된 ‘오징어게임2’ 제작 확정 소감글

2022년 6월 13일에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을 확정하는 소감을 발표했다. 이때 감독의 소감이 담긴 이미지가 뉴스와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었는데, 흑색 먹이 번진 종이 질감에 한글재민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크 코미디가 가미된 극적인 서바이벌 게임을 그려낸 드라마의 테마와 날카롭고 단단한 느낌의 한글재민체가 잘 어우러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림 53> 한글재민체가 활용된 ‘오징어게임2’ 소감글

연구자를 비롯한 한글재민체 개발 추진팀은 실제 활용 사례들을 찾아보며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폰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글재민체 활용에 있어 사용자의 니즈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53>의 첫 글귀인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는 글자에 아웃라인을 주어 제목처럼 강조했다. 한글재민체를 다양한 두께의 가족군으로 제작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았다. 폰트를 무료로 배포할 경우 사용성에 제한이 없어서 대중적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용 사례를 살펴보며 폰트를 개선하거나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I. 결론



VI. 결론

6.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1908년 순종 황제에 의해 기록된 왕실의 공식문서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사자관 필체를 분석하여 ‘사자관체’라는 새로운 서체 스타일을 제시하고 디지털폰트 ‘한글재민체’의 디자인과 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한글재민체는 한글 폰트의 구성을 이루는 기본 영역인 한글, 라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및 문장부호는 물론 방대한 영역의 한자 8,682자가 포함된 한 벌의 폰트로 제작되었다.

1장에서는 한글재민체가 개발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대상인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2장에서는 훈민정음을 비롯해 창제초기 한글의 글꼴부터 관료들에 의해 다양해진 한글의 형태적 변천을 살폈고, 현재 디지털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 디지털폰트의 구성과 배포 현황을 기록했다. 3장에서는 고문헌 속 한글 글꼴의 복원과 재해석을 통해 개발된 폰트 사례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개원칙서 외에도 사자관에 의해 기록된 구한말 고문서의 한글 글꼴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사자관체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폰트 한글재민체를 디자인했다. 5장에서는 제작된 한글재민체 폰트의 보급과 무료배포 및 실제 사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6.2. 연구의 가치

국운이 백성의 안위에 달림을 의미하는 주권재민에 의거하여 제작된 한글재민체는 한글을 사용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되었고 상용화됨으로서 제목용 폰트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가치를 두고 있다. 궁서체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상용화되고 있는 옛 글꼴 기반의 폰트들과는 조형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성격의 폰트를 제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한글재민체 개발을 위한 기초 사례 연구 과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접할 수 없는 고문헌들을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대상인 대한의원개원칙서의 글꼴 외에도 조선의 공식문서를 기록했던 사자관의 필체를 발견함으로써 사자관의 신분을 지녔던 명필 한호의 계보에 따라 정립된 서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자관 붓글씨 글꼴만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재해석폰트 한글재민체에 구현하였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개원칙서의 글꼴을 조형적 표현으로 형상화하여 심미성이 뛰어난 글꼴로 완성시켰다.

한글재민체를 통해 제목용 폰트 중에서는 최초로 한글과 라틴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및 문장부호와 더불어 한자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자의 개발 영역이 KS 표준한자인 4,888자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인명용한자와 한국한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모든 인명과 지명을 한글재민체 한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한자 203자를 추가 제작하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고유한자를 재조명할 수 있었다.

6.3.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한글재민체는 본문용이 아닌 제목용 폰트로 개발되었다. 제목용 폰트의 특성상 주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세밀한 특징 요소들을 부여하게 된다. 두껍게 시작하다가 날카롭게 맺어지는 세로획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한글재민체는 폰트 크기를 본문용에 맞춰 사용할 경우, 글자 판독에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 및 배포된 한글재민체1.0, 2.0, 그리고 3.0은 모두 한글 완성형 2,350자를 포함한 제목용 서체로 개발되었는데, 연구자는 한글 11,172자가 포함된 본문용 버전의 한글재민체 제작을 위한 후속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버전은 사자관체의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작은 폰트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도록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대학교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는 ‘한글의 세계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한글날에 맞춰 간체 약 6,000자가 추가로 탑재된 한글재민체4.0을 배포할 예정이다. 간체자는 주로 중국 대륙에서 사용되지만 중국과 교류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지면서 한국의 표지판에는 번체자보다도 대부분 간체자가 등장한다. 한글재민체3.0 제작을 통해 탑재된 한자 8,682자에 간체자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면 중국에서의 한글재민체 사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Shiyun Deng, Siyun He, Wnating Zeng. (2020). *Typograpy Now*. Kowloon : SendPoint.
- 김진평. (2019). *한글의 글자표현*. 서울 : 미진사.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이규복. (2020).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 경기도 : 이서원.

국내학술지

- 권익기. (2018). 대법원 선정 인명용(人名用) 한자(漢字)에 관한 고찰. *동방문화와 사상*, 5, pp. 149-174.
- 김은희. (2021). 현대 중국 사회에서의 한국 고유한자 '國字'의 존재 양상 분석. *외국학연구*, 0(58), pp. 123-154.
- 박나리. (2020). 신문 헤드라인의 언어적 특성. *語文論集*, 81, pp. 7-41.
- 박용만. (2021).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0(45), pp. 134-163.
- 서강선. (2012). 번역과 문체의 습합 및 변용. *우리말 글*, 56, pp. 397-420.
- 선주선. (1997). 학서(學書)의 순서와 영자 팔법(永字八法). *私學*, 80, pp. 107-111.
- 유정숙. 한글 옛 글자체의 발굴과 개발에 관한연구(3),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18권, 4호, 219-232
- 이규선. (2021).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기초조형학연구*, 22(3), pp. 319-330.
- 이규선. (2022).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 *기초조형학연구*, 23(1), pp. 369-380.
- 이근형. (2018).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에 대한 제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3, pp. 48-58.
- 이성수, 최병목. (2008). 근현대 한글 컴퓨터서체의 변화와 디지털폰트가 Caligraphy에 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과 논문지*, 8(6), pp. 159-163.
- 이정자. (2015). 『옥원중회연』 한글 필사본의 서지학 고찰과 서사기법. *서예학연구*, (27), 285-323.
- 최형인, 이성진, 박경환. (1996). 훈민정음 해례본 글꼴의 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기초 연구. *새국어생활*, 6(2), pp. 36-64.
- 홍석일. (1997).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0(21), pp. 149-158.

박사학위논문

한소윤. (2014). "한글 宮體의 變貌 樣相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웹페이지

온국민이 쓰는 기본폰트, 바른바탕체 한자를 소개합니다 . (n.d.).

<https://yoon-talk.tistory.com/542>.

디지털 시대의 한글서체, 도전적이고 자유로워지다 . (2019).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926>.

Typography Seoul,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352>

표 목록

- <표 1> 창제초기 한글 글꼴의 변화
- <표 2> 월인석보에 간행된 ‘세종어체 훈민정음’, ‘석보상절서’, ‘월인천강지곡서’
- <표 3> 관료서체의 글꼴 분석
- <표 4> 관료궁체와 서사상궁 궁체 (상)어제경세문답속록, (하)옥원중회연 11책
- <표 5> 한글, 한자, 라틴 아라벳의 혼용
- <표 6> 대법원인명용한자의 변화
- <표 7> 고문헌 옛글자체 기반의 디지털폰트 사례
- <표 8> 훈민정음 해례본 글꼴 기반의 디지털 폰트
- <표 9> 고문헌 기반의 폰트 디자인
- <표 10> 필사 유형의 옛글꼴 기반 폰트
- <표 11> 한글재민체의 개발 범위
- <표 12> 대한의원개원칙서 글자의 개수와 종류
- <표 13>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107자 발췌
- <표 14> 옥원중회연과 개원칙서 글자 비교
- <표 15> 대한의원개원칙서 글자 특징
- <표 16> 한글과 한자 획의 특징
- <표 17> 한글재민2.0 한자에 반영된 개원칙서 글자 요소
- <표 18> 한양해서와 방송체에서 취한 한자 모양자
- <표 19> 한자 부수의 종류
- <표 20> 한글재민체에서 발견된 오류사항 및 수정 내용
- <표 21> 한국한자의 조자원리 4종류

- <표 22> 한글의 조형을 반영한 한글재민체의 한국한자
- <표 23> 방송체 한자의 ‘ㅇ’꼴
- <표 24> 한국한자의 세모꼴과 원의 형태
- <표 25> 한글재민체3.0 반영된 한국한자의 세모꼴과 원 형태
- <표 26> 스크립트 유형의 폰트
- <표 27> 트랜지셔널 유형의 폰트
- <표 28> 글리픽 유형의 폰트
- <표 29> 글꼴 유형에 따른 한글재민3.0 라틴 알파벳의 형태
- <표 30> 한글재민체3.0의 한글, 한자, 라틴 알파벳 세리프 형태 비교
- <표 31> 한글재민체3.0 특수문자 영역
- <표 32>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돌기
- <표 33>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세로획 맺음
- <표 34> 한글재민체3.0 아라비아 숫자의 축과 꼬리
- <표 35> 한글재민체3.0 라틴 알파벳 합자 부재의 문제점
- <표 36> 한글재민체3.0 라틴 알파벳 합자, ‘ff’, ‘fi’, ‘ffi’, ‘fl’, ‘ffi’
- <표 37> 한글재민체 특별전 3회 일정 및 제목

그림 목록



- <그림 1> 대한의원개원칙서
- <그림 2> 홍무정운역훈의 한글 글꼴
- <그림 3> 어제경세문답언해 한글 글꼴 표본
- <그림 4> 옥원중회연의 한글 글꼴
- <그림 5> 모아쓰기 구조의 한글 글자
- <그림 6>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글자 내부구조 차이
- <그림 7> 한글 바탕체의 한글, 라틴 알파벳, 숫자에서 보이는 세리프의 형태
- <그림 8> 국내 간판에 쓰이는 한글과 한자
- <그림 9> 국한문 혼용의 뉴스 헤드라인
- <그림 10> ‘바른바탕체’에 탑재된 한글과 한자
- <그림 11> ‘언간독’에서 집자한 글자로 만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그림 12> 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 <그림 13> ‘임산예지법’ 서체 복원 프로젝트
- <그림 14> 어제자성편언해서의 서로 다른 글자 모양
- <그림 15> 2003년 ‘(주)윤디자인그룹’에서 개발한 ‘월인석보체’
- <그림 16>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옛멋글씨 이용 사례
- <그림 17> 디자인210 ‘뿌리 깊은 프로젝트’ 정숙언해체 두께 3종

- <그림 18> 한호의 필적 - 석봉한호해서집 中, 서울역사박물관 소재
- <그림 19>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62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1894년)
- <그림 20>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613,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1895년)
- <그림 21>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61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친서(1899년)
- <그림 22> 왕실고문서 617에 나타나는 ‘표’의 형태
- <그림 23>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 102,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1907년)
- <그림 24> 화봉 소장 서순행일기
- <그림 25> 한글재민체1.0 디자인 컨셉
- <그림 26> 추사 김정희의 소심란
- <그림 27> 개원칙서 본연의 요소, ‘코’, ‘컨’, ‘야’
- <그림 28> 이원화된 요소 ‘저’, ‘지’
- <그림 29> 이원화된 요소 ‘노’, ‘논’, ‘도’, ‘돈’, ‘로’, ‘론’
- <그림 30> 네이버 한자사전에 나타나는 한자 이체자
- <그림 31> 복잡한 조형의 한자 획 굵기
- <그림 32> 한글재민체1.0에 탑재된 대소문자 라틴 알파벳
- <그림 33> 한글에서 취한 한글재민1.0의 조형적 특징
- <그림 34> 한글재민체2.0 국한영문 혼용 사례
- <그림 35> 한글재민체3.0 한글과 한자 획 특징
- <그림 36> 복스-Atypi 라틴 알파벳 분류법
- <그림 37> 한글재민체3.0 글줄 배열
- <그림 38> 아라비아 숫자의 조형적 특징
- <그림 39> 라틴 알파벳의 합자
- <그림 40> 한글재민체 전시 도록 3종
- <그림 41> 박재갑 명예교수가 임모한 대한의원개원칙서 한글 번역본
- <그림 42> 박재갑 명예교수가 임모한 상학부대신서(上學部大臣書) 일부
- <그림 43> 3·1 독립선언서 원문
- <그림 44> 박재갑 명예교수가 임모한 삼일독립선언서 일부
- <그림 45> 한글재민체로 새겨진 ‘천지인상생심天地人相生心’ 전각 작품
- <그림 46> 2021년 한글재민2.0 특별전 작품
- <그림 47> 2022년 한글재민3.0 특별전 작품
- <그림 48>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무료로 배포된 한글재민체
- <그림 49> 공유마당에서 ‘인기순위 TOP 1’을 기록한 한글재민체1.0
- <그림 50> 한글재민체가 자막으로 활용된 TV조선의 ‘화요일 밤이 좋아’
- <그림 51>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상회’ 홍보 인쇄물에 인쇄된 한글재민체
- <그림 52> 넷플릭스 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된 ‘오징어게임2’ 제작 확정 소감글
- <그림 53> 한글재민체가 활용된 ‘오징어게임2’ 소감글

Abstract

Hangeul, as a cultural product, has been developed into various contents in the ever-changing digital environment. As more fonts have been consumed these days, the market has become saturated with a plethora of fonts in numerous styles. As a result, restoring fonts based on Hangeul characters seen in ancient literature has steadily become an area of focus.

However, there is little to no study on font design and research on script fonts based on characters found in ancient documents that are not books, and this becomes even more apparent when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s are mixed.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restoring fonts when the number of characters are limited.



To carry on the legacy and heritage of Hangeul as a cultural asset, this study uncovers the old characters of Korean-Chinese mixed document,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大韓醫院開院勅書)' issued by Emperor Sunjong in 1908. Thi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Hangeul Jaemin (韓契在民體),' a reinterpretation of the Hangeul characters found in the Edit in the form of a digital font to suit the modern era.

The Imperial Edict is an official document in the Joseon Dynasty, written by Sachaguan (寫字官). Sachaguan, whose duty was to write down the king's commands in the Joseon Dynasty, is originated from Hanho (韓濩), a master calligrapher of Joseon Dynasty who is well-known as Han Seokbong to the public. Following Hanho's legacy,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s that look sharp yet determined in the Joseon's official documents were defined as 'Sachaguan Font (寫字官體).' Based on impressions of 33 Hangeul letters shown in Imperial Edict, the researcher created 'Hangeul Jaemin,' a Hangeul font that holds not only Hangeul, Latin alphabet, numbers and punctuation marks, but also Chinese characters.

Hangeul Jaemin Font puts focus on the concept of ‘a whole set.’ To make a set of Hangeul fonts, it’s required to develop Latin alphabet, Arabic numerals, punctuation marks in a consistent manner as they’re used in conjunction with Hangeul. Hangeul Jaemin Font marks a milestone in that it’s the first display font that is equipped with Chinese characters.

A large percentage of the Korean vocabulary takes root in Sino-Korean words. It’s needless to say that there are times when it’s necessary to mix or present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s side by side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accurate conveyance of meaning. This becomes especially necessary when describing proper nouns and homonyms such as ancient quotes, name of places, and official names. Due to the massive amount of characters and strenuous time required to design and develop, Chinese characters are seldom included in the conventional fonts. Hangeul Jaemin Font contains 4,888 Chinese characters that fall under KS X 1001 Chinese character field, 203 Chinese characters made in specifically in Korea and 8,279 Chinese characters selected by the Supreme Court. Chinese characters selected by the Supreme Court is included to enable users to express their names in Hangeul, Chinese and English with a single font, in a unified stile. Also, the additional 203 Chinese characters made purely in Korea is intended to shed a light on Korean-Chinese Characters developed by our ancestors so as to write syllables of native Korean words before the wide use of Hangeul.

The process of turning the handwriting of Sachaguan into a reinterpreted font is recorded in detail; the process of research and interpretation, commercialization through exhibition and free online distribution. Hangeul Jaemin Font has been upgraded twice from version 1.0 to 3.0. Whenever the font was completed, it was shared as open source material on the sharing board of Korea Copyright Commission’s website. That way anyone, anywhere could freely download the font and use with liberty. Emperor Sunjong opened Daehan Hospital for people. The commercialization of Hangeul Jaemin as a free font is a case that highlights artistic and cultural value.

Besides the Imperial Edict, there is a sea of ancient documents that have yet to be discovered anew in the modern era. It is the researcher's hope that through this study, more creative attempts will be made not only in the rediscovery and reinterpretation of Korea's legacy, Hangeul, but also in various territories of characters. This study intends to lay the foundation for Hangeul to be recognized in Korea and overseas by exploring and discovering contents continuously so that beautiful Korean culture imbued with ancestors' wisdom and artistic sense will be not forgotten.

Keyword : Imperial Edict on the Inauguration of Daehan Hospital, Sachaguan Font, Reinterpreted Font, Korean-Chinese Character, Cultural Asset Design



[한자 8,628자 - KSx1001 한자 4,888자]

伽佳假價加可呵哥嘉嫁家暇架枷柯歌珂痂稼苛茄
街袞訶賈跏軻迦駕刻却各恪慤殼珏脚覺角閣侃刊
墾奸姦干幹懇揀杆柬桿澗癩看礪稈竿簡肝艮艱諫
間芻喝曷渴碣竭葛褐蝎鞫勘坎堪嵌感憾戡敢柑橄
減甘疳監瞰紺邯鑑鑿龕匣岬甲胛鉀闌剛垧姜岡崗
康强彊慷江薑疆糠絳綱羌腔舡薑襁講鋼降鯨介价
個凱塏愷愾改概漑疥皆盖箇芥蓋鎧開喀客坑粳
羹釀倨去居巨拒据據舉渠炬祛距踞遽鉅鋸乾件健
巾建愆捷捷虔蹇鍵騫乞傑杰桀儉劍劒檢驗鈐黔劫
怯怯偈憇揭擊格橄激膈覘隔堅牽犬甄絹繭肩見謹
遣鶻抉決潔結缺訣兼慊箝謙鉗鎌京徑倥傾倣勁勗
卿垧境庚徑慶憬擎敬景曝更梗涇炅烟璟璣瓊痊硬
磬竟競綱經耕耿脛莖警輕逕鏡頃頸驚鯨係啓堺契
季屆悸戒桂械策溪界癸磳稽系繫繼計誠谿階鷄古
叩告呱固姑孤尻庫拷攷故敲暘枯槁沽痼臯宰稿羔
考股膏苦菰菰藁蠱袴誥辜錮雇顧高鼓哭斛曲梏穀
谷鵠困坤崑昆梱棍滾琨袞鯤汨骨供公共功孔工恐
恭拱控攻珙空蚣貢鞏串寡戈果瓜科菓誇課跨過鍋
顆廓榔藿郭冠官寬慣棺款灌琯瓘管罐菅觀貫關館
刮剗括适佻光匡壙廣曠洸吹狂玳筐胱鑛卦掛罨乖

傀塊壞怪愧拐槐魁宏紘肱轟交僑咬喬矯嶠巧攪教
校橋狡皎矯絞翹膠蕎蛟較輻郊餃驕絞丘久九仇俱
具勾區口句咎嘔坵垢寇嶇廐懼拘救枸柁構歐毆毬
求溝灸狗玖球瞿矩究絀耆白舅舊苟衢謳購軀逯邱
鉤鉅駒驅鳩鷗龜國局菊鞠鞠麴君窘群裙軍郡堀屈
掘窟宮弓穹窮芎躬倦券勸卷圈拳捲權港眷厥獮蕨
蹶闕机櫃潰詭軌饋晷歸貴鬼叫圭奎揆槻珪硅窺竅
糾葵規趕達閨勻均哟筠菌鈞橘克剋劇戟棘極隙僅
劬勤懃斤根槿瑾筋芹莖覲謹近饑今矜擒吟檣琴禁
禽苓衾衿襟錦伋及急扱汲級給巨兢矜肯企伎其冀
嗜器圻基埼夔奇妓寄岐崎己幾忌技旗旣暮期杞棋
棄機欺氣汽沂淇玳琦琪璣畸畿碁磯祁祇祈祺箕
紀綺羈耆糝肌記譏豈起錡鋌飢饑騎騏驥騏緊佶吉
拮桔金喫儼娜懦拏拿那諾暖煖難捏捺南柎楠浦男
納衲囊娘乃內奈柰耐女年撚季念恬拈捻寧寗努奴
弩怒璫駑濃膿農惱腦尿嫩訥忸紐能尼泥匿溺多荼
丹亶但單團壇彖斷旦檀段湍短端篔緞蛋袒鄆鍛撻
遶獺疸達啖坳愴擔曇淡湛潭澹痰聃膽蕁覃談譚鈇
杏畚咎踏逯唐堂塘幢憇撞棠當糖螳黨代岱垓大對
岱帶待戴擡玳臺袋貸隊黛宅德惠倒刀到圖堵塗導

屠島嶋度徒悼挑掉搗桃棹櫂淘渡滔濤燾盜睹禱稻
苟覩賭跳蹈逃途道都鍍陶韜毒瀆牘犢獨督禿篤轟
讀墩惇敦吨噉沌焯燉豚頓彳突仝冬凍動同懂東桐
棟洞潼疼瞳童洞董銅兜斗杜抖痘竇荳豆逗頭屯臀
芑遁遜鈍得嶝橙燈登等藤騰鄧騰喇懶癩羅蘿螺裸
邏洛烙珞絡落酪駱亂卵欄樂瀾爛蘭鸞刺辣嵐摯攬
攬濫籃纜藍襪覽拉臘蠟廊朗浪狼琅瑯螂郎來峽徠
萊冷掠略亮倆兩凉梁樑粮梁糧良諒輻量侶儷勵呂
廬慮戾旅欄瀘礪藜蠣閭驢驪麗黎力曆歷瀝礫鞅
憐戀攣漣煉璉練聯蓮輦連鍊冽列劣冽烈裂廉斂殮
濂簾獵令伶囹岑嶺伶玲苓鈴翎聆逞鈴零靈領齡例
禮禮醴隸勞撈擄櫓潞瀘爐盧老蘆虜路輅露魯鶯鹵
碌祿綠菘錄鹿麓論壘弄隴瀧瓏籠聾儻瀨牢磊賂賚
賴雷了僚寮廖料燎療瞭聊蓼遼鬧龍壘婁屢樓淚漏
瘵累縷婁樓鏤陋劉旒柳榴流溜瀏琉瑠留瘤硫謬類
六戮陸侖倫崙淪綸輪律慄栗隆勒肋凜凌楞稜綾菱
陵俚利厘吏唳履悞李梨湮犁狸理璃痢籬罹羸莉裏
裡里釐離鯉吝潏潏璘藺躡隣鱗鱗林淋琳臨霖竝立
笠粒摩瑪痲碼磨馬魔麻寞幕漠膜莫邈万卍媿鬱鬱
慢挽晚曼滿漫灣瞞萬蔓蠻輓饅鰻忒抹末沫茱襪鞅

亡妄忘忙望網罔芒茫莽輞邛埋妹媒寐昧枚梅每煤
罵買賣邁魅脈貊陌騫麥孟氓猛盲盟萌冪覓免冕勉
棉沔眄眠綿緬面麵滅蔑冥名命明暝楡溟皿暝茗莫
螟醑銘鳴袂侮冒募姆帽慕摸摹暮某模母毛牟牡瑁
眸矛耗茅茅謀謨貌木沐牧目睦穆驚歿沒夢朦蒙卯
墓妙廟描昴杏渺猫鈔苗錨務巫撫懋戊拇撫无楸武
毋無珺畝繆舞茂蕪誣貿霧鷓墨默們勿吻問文汶紊
紋聞蚊門雯勿沕物味媚尾岨彌微未梶楣羨湄眉米
美薇謎迷靡黴岷悶愍憫敏旻旻民泯玳珉緡閔密蜜
謐剝博拍搏撲朴樸泊珀璞箔粕縛膊舶薄迫雹駁伴
半反叛拌搬攀斑漿泮潘班畔癩盤盼磬礮礮絆般蟠
返頌飯勃拔撥渤潑發跋釅鉢髮魃倣傍坊妨尨幫仿
房放方旁昉枋榜滂磅紡肪膀舫芳莠蚌訪謗邦防龐
倍俳培俳拜排杯湃焙盃背胚裴裴褫賠輩配陪伯佰
帛柏栢白百魄幡樊煩燔番繁蕃藩翻伐筏罰閥凡帆
梵汎汎泛犯範范法珙僻劈壁擘檠壁癖碧蘖闢霹卞
弁變辨辯邊別瞥鰲鰲丙併兵屏并昞曷柄榑炳瓶病
秉竝駟餅駢保堡報寶普步沕淥潛珺甫菩補祿譜輔
伏僕匍卜宓復服福腹苾蔔複覆輶輻馥馥本莛倖奉
封峯峰捧棒烽烽琫縫蓬蜂逢鋒鳳不付俯傅剖副否

咐埠夫婦孚孵富府扶敷斧浮溥父符簿缶腐腑膚斛
芙苒訃負賦賻赴跌部釜阜附駙鳧北分吩噴墳奔奮
忿憤扮盼汾焚盆粉糞紛芬賁霽佛弗拂拂崩朋棚砌
繡鵬丕備匕匪卑妃婢庇悲憊扉批斐枇榷比岷毗昆
沸琵琶砒碑秕秘粃緋翡肥脾臂菲蜚裨誹譬費鄙非
飛鼻嘔嬪彬斌檳殯浜濱瀕牝玳貧賓頻憑水聘騁乍
事些仕伺似使俟僊史司峻嗣四士奢娑寫寺射巳師
徙思捨斜斯栖查梭死沙泗渣瀉獅砂社祀祠私飾紗
絲肆舍莎蓑蛇裝詐詞謝賜赦辭邪飼駟麝削朔傘刪
山散汕珊產疝算蒜酸霰芝撒殺煞薩三杉森滲芟蓼
衫插澁釵颯上傷像償商喪嘗孀尙岈常床庠廂想桑
橡湘爽牀狀相祥箱翔裳觴詳象賞霜塞璽賽嗇穡索
色牲生甥笙墅壻嶼序庶徐恕抒接敍暑曙書栖棲犀
瑞筮絮緒署胥舒薯西誓逝鋤黍鼠夕爽席惜昔皙析
汐浙瀉石碩蓆釋錫仙僊先善嬋宣扇散旋渲煽琬瑄
璇璿癩禪線繕羨腺膳船薜蟬詵跣選銑鑄鑄鮮高屑
楔泄洩渫舌薛褻設說雪齧剗遲殲纖蟾贍閃陝攝涉
燮城姓戍性惺成星晟猩城盛省箴聖聲腥誠醒世勢
歲洗稅笹細貰召嘯塑宵小少巢所掃搔昭梳沼消溯
瀟炤燒甦疏疎瘡笑篠簫素紹蔬蕭蘇訴迢遯邵銷韶

騷俗屬束凍粟續謾贖速孫巽損蓀遜滄率宋悚松淞
訟誦送頌刷灑碎鎖衰釗修受嗽囚垂壽嫂守岫岫帥
愁戍手授搜收數樹殊水洙漱燧狩獸琇璣瘦睡秀穗
豎粹綏綏繡羞脩茱萸蓂藪袖誰讐輸遂邃酬銖鏤隋
隧隨雖需須首髓鬚叔塾夙孰宿淑瀟熟琬璫肅菽巡
徇循恂旬枸楯榭殉洵淳珣盾瞬筍純脣舜荀萼薜詢
諄醇錚順馴戍術述鉅崇崧嵩瑟膝蝨濕拾習褶襲丞
乘僧勝升承昇繩蠅陞侍匙嘶始媿尸屎屍市弒恃施
是時柿柴猜矢示翅蒔著視試詩諡豕豺埴寔式息拭
植殖湜熄簋蝕識軾食飾伸佻信呻娠宸慎新晨燼申
神紳腎臣莘薪蓋蜃訊身辛迅失室實悉審尋心沁深
瀋甚苾謀什十雙氏亞俄兒啞娥峨我牙芽莪蛾衙訝
阿雅餓鴉鵝聖岳嶽幄惡愕握樂渥鄂鍰顎鰐齷安岸
按晏案眼雁鞍顏鮫幹謁軋闕唵岩巖庵暗癌菴閭壓
押狎鴨仰央快昂殃秧鴛厓哀埃崖愛曖涯碍艾隘靄
厄扼掖液縊腋額櫻罌鶯鸚也仰冶夜惹擲榔爺耶野
弱約若葯莧藥躍伴壤孃恙揚攘敷暘楊樣洋養煬痒
瘍穰穰羊襄讓釀陽養囿御於漁瘵禦語馭魚齧億憶
抑憶臆偃堰彥焉言諺孽孽俺儼嚴奄掩淹業業円予
余如歟汝璵璵與臚茹輿輦餘亦域役易疫繹譯逆驛

嚙堦妍娟宴延捐挺椽沆沿涎涓淵演烟然煙燃燕研
硯筵緣縵衍軟鉛鳶悅涅熱閱厭染炎焰琰艷苒閭髯
鹽曄燁葉莖嶸影映暎楹榮永泳漢穎滌瀛澹煨營獍
瑛瓔盈穎纓英詠迎鎡霏乂倪刈叡曳汭滅猊睿穢芮
藝蘂裔詣譽豫銳霓預五伍佻傲午吾吳鳴塢奧娛
寤悟懊敖昨晤梧污澳烏熬熬奠蜈誤鰲鰲屋沃獄玉
鈺溫溫瘟穩縕蘊兀壅擁瓮甕癰翁邕雍饗渦瓦窩窪
臥蛙蝸訛婉完宛椀碗浣玩琬碗緩翫腕腕莞琬阮
頑曰往旺枉汪王倭娃歪矮外嵬巍猥畏僥凹堯夭妖
姚寥嶢拗搖撓擾曜橈耀瑤窈窕繇繞耀腰繞要謠遙
邀饒慾欲浴縛褥辱侑傭冗勇埶墉容庸憑榕涌湧溶
熔瑤用甬聳茸蓉踊鎔鏞于佑偶優又友右宇寓尤愚
憂吁牛玕璃孟祐禍禹紆羽芋藕虞迂遇郵鈺隅雨雩
勛或旭昱栒煜穢郁頊云檉殞澣煩耘芸蕓運隕雲韻
蔚鬱亏熊雄元原員圓園垣媛嫫冤怨愿援沅洹浚源
爰猿瑗苑袁轅遠院願鴛月越鉞位偉偽危圍委威尉
慰暉渭爲瑋緯胃萎葦薦蝟衛禕謂違韋魏乳侑儒兪
唯喻孺宥幼幽庾悠惟愈愉揄攸有柔柚榆楮油洧游
濡猶猷瑜由癒維史莢裕誘諛諭踰蹂遊逾遺酉釉鍤
埴毓肉育允齋尹潤玃胤贛銳閏聿戎灑絨融垠恩慙

殷閭銀隱乙吟淫蔭陰音飲揖泣邑凝應膺鷹依倚儀
宜意懿擬椅毅疑矣義蟻蕙蟻衣誼議醫二以伊夷姨
已弛彝怡爾珥異痍移而耳肄苾蕘貽貳邇飴餌瀼益
翊翌翼謐人仁刃印咽因姻寅引忍湮緬茵蚓認鞞鞞
一佚佻壹日溢逸鎰駟任壬妊姪恁稔荏賃入什仍剩
孕苻仔刺咨姊姿子字孜恣慈滋炙煮茲瓷疵磁紫者
自茨蔗藉諮資雌作勺嚼斫昨灼炸爵綽芍酌雀鵲屨
棧殘潺盞岑暫潛箴簪蠶雜丈仗匠場墻壯獎將帳庄
張掌曄杖樟檣欖漿牆獐璋章粧腸臟臧莊葬蔣薈藏
裝贓醬長障再哉在宰才材栽梓濺滓災絳裁財載齋
齋爭箏諍錚佇低儲咀姐底抵杵楮樗沮渚狙猪疽箸
紵苧菹著蓐詛貯躅這邸睢齟勳吊嫡寂摘敵滴狄的
積笛籍績翟菽謫賊赤跡蹟迪迹適鎬佃佻傳全典前
剪塤塤奠專展廛悛戰栓殿甌澱煎琬田甸畑癩筌箋
箭篆纏詮輾轉鈿銓錢鑄電顛顛餞切截折浙癩竊節
絕占岫店漸点粘霑鮎點接摺蝶丁井亭亭偵呈姪定
幘庭廷征情挺政整旌晶最枉楨檉正汀淀淨淳瀟瀟
炆玳瑁町晴碇禎程穽精艇艇訂諄貞鄭酊釘鉦鉦鉦
霆靖靜頂鼎制劑啼堤帝弟悌提梯濟祭第臍薺製諸
蹄醞除際霽題齊俎兆凋助嘲弔彫措操早晁曹曹朝

條棗槽漕潮照燥爪瓌眺祖祚租稠窳粗糟組繰肇藻
蚤詔調趙躁造遭釣阻雕烏族簇足鏃存尊卒拙猝侏
宗從悰慙棕淙琮種終綜縱腫踪踵鐘鐘佐坐左座挫
罪主任侏做姝胄呪周嗾奏宙州廚晝朱柱株注洲湊
澍炷珠疇籌紂紬綢舟蛛註誅走躄鞵週耐酒鑄駐竹
粥俊儁准埃窩峻峻樽浚準濬浚竣蠹逡遵雋駿茁
中仲衆重卽櫛楫汁葺增憎曾拯烝甑症繪蒸證贈之
只咫地址志持指摯支旨智枝枳止池汜漬知砥社祇
紙肢脂至芝芷蚰誌贅趾遲直稂稷織職唇嗔塵振摺
晉晉振榛殄津溱珍璿璿珍盡真瞋秦縉纁臻陳衫
診賑軫辰進鎮陣陳震侄叱姪嫉帙桎瓊疾秩窒腔蛭
質跌迭斟朕執凜緝輯鑠集徵懲澄且佻借又嗟嗟差
次此磋筍蹉車遮捉揞着窄錯鑿齷撰潔燦璨瓚竄纂
纂粲纘讚贊鑽餐饌刹察擦札紮僭參塹慘慙懣斬站
讒讖倉倡創唱娼廠彰愴敞昌昶暢槍滄漲猖瘡窓脹
膾莒蒼債塚窠寨彩採砦綵菜蔡采釵冊柵策責淒妻
悽處倜剔尺憾戚拓擲斥滌瘠脊蹠陟隻仟千喘天川
擅泉淺玕穿舛薦賤踐遷釧闡阡韃凸哲喆徹撤澈綴
輟轍鐵僉尖沾添恬瞻簽籤詹詔堞妾帖捷牒疊睫諜
貼輒廳晴清聽菁請青鯖荆替涕滯締諦逮遞體初剿

哨樵抄招梢椒楚樵炒焦硝礁礎秒稍肖艸茗草蕉貂
超酢醋醮促囑燭蠹蜀觸寸忖村邨叢塚寵恩惚摠總
聰蔥銃撮催崔最墜抽推椎楸樞湫皺秋芻菽諏趨追
鄒酋醜錐錘鎚雛騶鰓丑畜祝竺筑築縮蓄蹙蹴軸逐
春椿璿出朮黜充忠沖蟲衝衷悴腓萃贅取吹嘴娶就
炊翠聚脆臭趣醉驟驚側仄厠惻測層侈值嗤峙幟恥
梔治淄熾痔痴癡稚穉緇緻置致蚩輜雉馳齒則勅飭
親七柒漆侵寢枕沈浸琛砧針鍼蟄秤稱快他咤唾墮
妥惰打拖朶梢舵陀馱駝倬卓啄坼托擢暉柝濁濯琢
瑋託鐸吞嘆坦彈憚歎灘炭綻誕奪脫探眈耽貪塔搭
榻宕帑湯蕩兌台太怠態殆汰泰答胎苔跽邨颯擇澤
撐攄兔吐土討慟桶痛筒統通堆槌腿褪退頽偷套妬
投透鬪慝特闖坡婆巴把播擺杷波派爬琶破罷芭跛
頗判坂板版辦販辦飯阪八叭捌佩唄悖敗沛泚牌猥
稗霸貝彭澎烹膨復便偏扁片篇編翩遍鞭騙貶坪平
枰萍評吠嬖幣廢監傑契貢丘詭崎楠陵度鄧礫廖麟
眄墨頒剖碑飼棲星壽馴室厄予染懊曜標榆矣淋蔣
廛酈症斟菜初沖暉坂瓢杭莢鴻孝熹楓諷豐風馮彼
披疲皮被避陂匹弼必泌秘畢疋筆苾馥乏逼下何厦
夏厦昱河瑕荷蝦賀遐霞鰕壑學虐謔鶴寒恨悍旱汗

漢澣澣罕翰閑閒限韓割轄函含咸啣喊檻涵緘艦銜
陷鹹合哈盒蛤閤闔陝亢伉姮巷恒抗杭桁沆港缸
肛航項亥偕咳咳奚孩害懈楷海漑蟹解該諧遯駭骸
劾核倖幸杏苻行享向嚮珣鄉響餉饗香噓墟虛許憲
櫨獻軒歇險驗奕焮赫革倪峴弦懸睨泫炫玄玦現眩
覲絃絢縣舷銜賢鉉顯孑穴血頁嫌俠協夾峽挾泱狹
脅脇莢鋏頰亨兄刑型形洞滎滢滢炯熒珩瑩荊螢銜
迥邢瑩馨兮慧惠慧曠蕙蹊醯鞋乎互呼壕壺好岵弧
戶扈昊皓毫浩溟湖澣澣濠濠瀨瀨狐琥瑚瓠皓祛糊縞
胡芦葫蒿虎號蚰護豪鎬護顛惑或酷婚昏混渾琿魂
忽惚笏哄弘汞泓洪烘紅虹訂鴻化和燁樺火畫禍禾
花華話譁貨靴擴攫確礪穫丸喚奐宦幻患換歡院桓
渙煥環紈還驪鰓活滑猾豁闊凰幌徨恍惶愧慌晃眈
棍況湟滉潢煌璜皇篁簧荒蝗遑隍黃匯回迴徊恢悔
懷晦會檜淮滄灰獾繪膾苗蚰誨賄劃獲竄橫鑛嗜嚙
孝效數曉梟淖淆爻肴酵驍侯候厚后吼喉嗅候後朽
煦翊逅勛勳塤壩焄熏燻薰訓暈蕘喧暄煊萱卉喙毀
彙徽揮暉輝諱輝麾休携佻哇虧恤譎鷗兇凶匈洵胸
黑昕欣忻痕吃屹紇訖欠欽歆吸恰洽翕興僖熨喜噫
囂姬嬉希憇憇戲晞曦熙熹熨犧禧稀羲詰豈更車賈

滑串句龜龜契金喇奈懶癩羅蘿螺裸邏樂洛烙珞落
酪駱亂卵欄爛蘭鸞嵐濫藍襪拉臘蠟廊朗浪狼郎來
冷勞擄櫓爐盧老蘆虜路露魯鷺碌祿綠葦錄鹿論壘
弄籠聾牢磊賂雷壘屢樓淚漏累縷陋勒肋凜凌稜綾
菱陵讀拏樂諾丹寧怒率異北礮便復不泌數索參塞
省葉說殺辰沈拾若掠略亮兩涼梁糧良諒量勵呂女
廬旅濾礪閭驪麗黎力曆歷轆年憐戀撚漣煉璉季練
聯輦蓮連鍊列劣咽烈裂說廉念捻殮簾獵令囹寧嶺
伶玲瑩矜聆鈴零靈領例禮醴隸惡了僚寮尿料樂燎
療蓼遼龍暈阮劉杻柳流溜琉留硫紐類六戮陸倫崙
淪輪律慄栗率隆利吏履易李梨泥理痢罹裏裡里離
匿溺吝燐磷蘭隣鱗鱗林淋臨立笠粒狀炙識什茶刺
切度拓糖宅洞暴輻行降見廓

